

# 초대학장 마포삼열박사 내한100주년 기념강연회

주제 : 마포삼열과 한국기독교



장로회신학대학

100<sup>th</sup> Anniversary of Maffett's Arrival in Korea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https://archive.org/details/100thanniversary1721moff>

## 목 차

- I. 마포삼열의 생애와 사역 3 ..... 이종형목사
- II. 마포삼열의 신학과 사상 15 ..... 마삼락박사  
번역 : 이형기교수
- III. 마포삼열과 네비우스 설교방법 28 ..... G. Thompson Brown  
번역 : 이광순교수
- IV. 마포삼열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46 ..... 서정운교수



# 마포삼렬의 생애와 사역

## 이 중 형 목사

(신학박사 · 미국 뉴욕동광장로교회 담임)

금년은 본교의 설립자인 마포삼렬 선교사가 한국선교를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요 본교로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해다. 마포는 한국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한국에 기적을 일으킨 선교의 중심인물이다. 다음과 같이 그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 봄으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인정하며, 오늘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열고 도약해 가는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 가. 한국에 오기까지의 준비

Samuel Austin Moffett이 1864년 1월 25일 인디애나의 매디슨에서 스코트랜드 맹약자의 후손인 사무엘 슈만 마펫의 6째(4째아들) 자녀로 태어났을 때는 미국과 한국에 변천이 많은 때다. 1863년 링컨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이 격렬해지고 1865년 링컨은 저격을 당하였고, 미국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며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기였다. 지구의 다른 쪽 한국에서는 철종이 후계자없이 이 해에 서거함으로 약500년간 내려오던 왕통의 실권이 대원군에게 넘어가고 대원군은 그의 지위를 확고히하여 접근하는 외세를 견제하였다. 1866년에는 원산에 나타나는 소련함대, 대동강에 들어오는 미국상선, 강화도에 나타나는 불란서 함대를 몰리치고, 1871년에는 척화비를 세우기까지 했으나 1876년에는 일본과 대결하다가 강화조약을 맺고 나라를 열게 되었고, 이후 미국, 영국, 소련, 불란서와 조약을 맺고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마포삼렬은 엄격한 도덕적 확신을 가진 아버지와 그와 대조되는 명량한 성격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남북전쟁의 격변기에 아버지가 출전한 사이 어머니가 어린 삼렬을 길렀는데 그는 6세의 어린 나이에 교회 형편을 알고 성경귀절을 암송하였고, 11세에는 교회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였다.

하노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5세에 하노바대학에 입학했다. 이 대학은 서부개척의 필요에 맞추어 대학교육과 목회훈련을 위해 세워진 학교다. 여기서 삼렬은 화학을 전공하고 공동수석으로 졸업하였다. 대학생활은 마포에게 일평생의 좋은 지도력을 배양하는 시기였다. 그는 학교의 문학부에서 활동하고 특히 토론회에 나가 계속적인 우승을 하고, 친구들과 사교클럽에도 참여하여 수영 댄싱 야구도 즐겼다.

YMCA는 마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친구와 같이 모금을 하여 학교내에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였고, Y를 지역 교회봉사의 중심처로 삼고, 많은 강연을 열었으며 마포도 Y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나중 매디슨의 청년면려회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다. 하노바대학에서 한학년 아래의 배위량(William Baird)과 그의 형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수로 와 있는 John Baird를 만난것은 마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John을 통하여 마포는 신학과 목회에 눈을 뜨게됐다. 마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화학을 연구하며 1년을 더 지냈으나 배위량이 졸업할 때 “목회단”으로 알려진 이 둘은 같이 1885년 매코믹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매코믹신학교는 하노바대학의 신학부로 서부개척에 맞는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시카고가 새

로운 개척자가 되어 1856년에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마포가 재학당시 보수신학의 전당이면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교회의 부흥과 신학생의 선교자원운동을 위해 1880년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이 전 신학교연맹을 조직하고, 1886년에는 무디와 함께 251명의 학생들이 혈본산에서 26일간 집회를 하고 100명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 마포는 배위량과 같이 무디의 집회에 참여하였고, 다른 세 친구와 같이 학교에서 매일 기도회를 가졌고, 이들 5명 모두가 외국선교사로 나갔는데 4명이 한국에 가는 최초의 매키믹 졸업생이 되었다.

마포는 1889년 3월 26일에 제출한 선교사지원서에 “신학교 2학년(1886)때 나는 외국선교의 문제를 대했고, 이기적인 계획과 투쟁한 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로 정하였다”고 고백했다. 1889년 9월 4일 미국장로교 선교부의 총무 Frank Ellinwood는 마포를 이미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언더우드의 형 John Underwood에게 소개했다. 선교부도 존도 마포를 좋아하여 존은 마포를 그의 선교사로 받아들여 한국 여행비용과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엘린우드는 한국선교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청년으로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선교사역에 있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면에 뛰어난 정신을 가진 것 같다.

#### 나. 한국선교의 학습지 및 탐험기(1890-1893)

마포가 그의 25회 생일인 1890년 1월 25일 한국에 도착한 때, 한국의 장로교선교부에서는 제 2기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다. 1888년의 금령은 사문서가 되고 선교의 문을 여는 시기가 지나고 선교사들의 선교지 확장의 날이 밝아 왔다. 미국선교부에서도 어떤 지역에서의 지나친 집중화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에서는 복음의 분산과 확장정책을 권장하였다. 언더우드와 알렌이 수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그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공격적 전도정책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런 때 마포가 도착하였기에 그의 신학동급생으로서 이미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기포드는 “적극적이며 동시에 보수적인” 마포의 도착은 전체 10명으로 구성된 선교부에 “가치 있는 첨가”라고 말했다.

마포가 도착한 후 첫 주일 예배에는 성인 15명, 어린이 30명이 참석했으며 금령으로 인해 찬송을 부르지 못했다. 도착 4일에 언어공부를 시작했으며, 둘째 주일에는 언더우드가 시작한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약 20명으로 구성된 주일학교를 책임지며 선교의 일에 임하게 됐다. 그가 본 한국은 복음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었다. 국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불행한 생활에 이미 젖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본 적 행복한 얼굴이 전도인이었고 이로서 뚜렷한 대조를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교사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다. 그는 국가의 앞날에 큰 가능성과, “지적이며 사람을 끄는” “강한 국민”을 내다 보게 됐고 이들은 정부의 착취와 노동천시 사상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다. 이들 속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조용히 씨를 뿌리고 있어 큰 수확을 내다보고 있기에 마포는 자기를 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마포가 할 일은 무엇보다 언어를 배우며 나라와 사람들을 익히고 선교사들의 하는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정책탓도 있지만 이제까지의 선교는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서울은 “정치적의 소용돌이”요 알렌과 언더우드는 이미 조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로 인해 또한 성격문제로 선교사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마포는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영적인 선교”를 하고 싶었고, 선교사는 국민의 도덕적 영적 재생에 사용되어야 하기에 모든 일에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다.

마포와 한국선교에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890년 6월 중국 산둥에서 25년간 일한 존 네비우스 선교사를 청하여 일곱선교사가 2주일간 모임을 가진 것이다. 마포는 여기서 그의 선교의 중심사상인 독특한 훈

런반 제도와 자급정책을 얻었고, 이어 한국선교부는 네비우스의 원리 곧 순회전도, 조사제도, 자급, 자전, 자치, 성경공부반, 엄격한 규율, 타교단과의 협력등을 선교정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마포는 이 방법들을 시험하고 증명해야만 했다.

마포는 언어학습과 사람들 접촉에는 순회여행이 최고임을 알고 평양지방으로 1890년 8월 29일 여행을 떠났다. 평양은 바다에서 배로도, 서울에서 육로로 가기 좋은 곳이요, 광산과 개목의 수도로 한국 제 3의 도시며, 사람들은 더 크고 강인해 보이고 서울 사람보다 더 독립적이고 쾌활하여 개항만 되면 가장 중요한 곳이 될 것으로 보였다. 이곳에는 감리교인이 18명, 근방에는 많은 천주교인이 있고, 장로교인은 세례자 3명과 구도자 3명이 있었다고 들었다. 외국인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한문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 여행의 결과로 그는 서울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지역에서 벗어나 매일 한국사람을 접촉하며 사람과 언어, 습관, 나라를 익히는 기회가 됐고, 그가 스코트랜드사람의 후어로 강인하게 한국음식 한국식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새선교부를 여는데 보다 나은 준비가 됐다고 보았다. 법으로는 외국인이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일본상인이 살고 있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제 2차 순회여행은 1891년 2월 육로로 걸어서 평양과 의주까지 그리고 만주에 까지 갔다. 목적은 전도하며, 언어와 습관을 학습하고 이전에 만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의주에는 만주 선교사 로스의 매서인 백홍준이 이미 일음하여 서울보다 많은 수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행했다. 그는 12일간 밤낮없이 신자들에게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1891년 또 다시 평양과 의주를 여행하며 전도와 가르침을 계속하고 평양이 제 2의 선교부가 되야함을 결정하게 됐다.

서울에서는 그가 한국 도착 직후 책임을 맡은 고아원을 통하여 네비우스의 원리를 실험하였다. 설립 때부터 여기서는 무료로, 1년내내 상주하며,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책임자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다. 이로서 마포는 1891년부터 고아원의 이름을 예수교학당이라 하여 남자학교로 바꾸고 장래가 없어 보이는 「아이를 돌려 보내고 새로운 학생의 경우는 방학 때는 집에 가며 학비를 부담하다는 조건으로 입학시켰다. 영어교육은 후에 광산이나 항구의 통역자로 나가는 길을 열고,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줄어 들고 선교부 지도자 양성에 차질이 생기며 영어를 통하여 세속주의의 글이 도입되기에 영어교육을 중단하였다. 한국의 필요에 의하여 중국어 성경교과서를 사용하여 철저한 성경교육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로 전환하였다. 이로서 선교사의 조사, 전도사,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기술교육과 노동의 고귀함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지급을 돕기 위해 기술과를 계획했으나 시설부족으로 연기하였다.

목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가 도착하여 약 10개월이 지난 1890년 10월 언더우드가 목사로 있는 서울교회를 책임지게 됐다. 이미 두 장로는 치리를 받았고, 교인 중 떠나는 자가 많아 세례지원자 교육의 기준을 높여 6개월 교육을 하게 했다.

교인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의 깊게 직원을 선출하고 훈련했다. 1892년 겨울에는 마포가 동창생 기포드와 같이 겨울 신학반을 개설하여 의주에서 서울까지의 선교사들이 정한 조사들이 참석하여 오전 오후에 공부를 하였다. 마포에게는 이들의 공부보다 신앙생활을 깊게하게 함이 목적이었다. 이들이 신학반에 참석하러 올 때에는 기독교가 없어서 즐기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는데 끝날 무렵에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보고 책임을 지고 떠나게 되었다.

1892년 그가 도착한지 2년이 되고 어느정도 말도 하게 되자 서울의 언더우드집에 있는 사랑방을 책임지게

했다. 이곳에서 마포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독교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마포는 그의 일을 즐기었다. 그러나 선교사역은 그 위치때문에 해를 받는 것을 보았다. 한국인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은 외국인촌이 있는데다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자라지 않으며 또한 길건너 감리교 선교사역과 경쟁이 되고 있어 이제 한국 도착 3년이 되어 말을 어느정도 자유롭게 하게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뺏어 나갈 때가 되었다.

#### 다. 교회와 선교부 설립자와 전략가.

마포는 1893년 1월 이길합, 소안련선교사와 함께 평양선교사로 임명받고 10월에는 서울의 모든 책임이 해제되었으나 아직 평양에는 외국선교사가 법적으로 거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적인 영주를 위한 준비로 한석진을 이사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였다. 첫 주일에 20명이 이집에 모여 예배하고 그 후 매주일 예배가 진행되어 평양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가 영주하러 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마포는 서울과 의주를 내왕하였다. 많은 이가 선교사의 존재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억압받는 사람들은 복음이 새 시대의 전령이라 생각하고 마포의 성공을 빌기도 했다. 동학난이 일어나 지방정부와 외국인에 대한 반란이 생긴 때 마포는 부패한 정부를 넘어뜨리며 혼란케하는 구실로 외국인을 반대한다고 보며 복음은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결하고, 복음전파의 문이 더욱 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마포는 백성들과 더욱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언제나 만나 그들의 생활속으로 그가 들어가고 그들이 그의 생활속으로 들어 오는 것을 원하고 실천하였다. 마포는 평양과 의주에서 학습반을 조직하여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이들로 고향과 이웃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미국선교부는 바로 이 동일화가 선교사로서 마포의 성공의 비결이라 했다.

그러나 개항이 아닌 평양에서 복음전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마포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선교사가 집을 산 것이 이유가 되어 장로교의 한석진과 감리교의 김창식이 잡히어 갇히게 됐다. 감리교의 홀선교사를 관할하는 영국공사관에서는 집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철수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마포는 미국영사관에 이의를 신청했다. 한국정부에서 집을 반환하라는 사전통고도 없었거니와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 집을 사고 있는데 최혜국조항에 따라 미국인도 집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체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고용권과 피고용인 보호권을 들어 불법적인 체포와 체형은 조약과기라고 하며 책임관리를 벌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선교사역에 방해를 받을 것으로 봤다. 한국정부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은 방면했으나 미국 영사관의 요구를 개념치 않았다. 그러다가 동학난의 와중에 정부는 중국에 원조를 요청하여 군대가 파송되고 이에 반응하여 일본이 또한 군대를 파송하니 정부는 미국에 협조를 의뢰했다. 미국영사는 평양사건 처리를 먼저 요구했다. 이로서 책임관리가 문책을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됨으로 이제부터 선교사의 활동에 방해와 박해가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마포의 지혜가 나타났다.

마포의 평양선교사역과 선교사로서의 그의 위치가 확립된 것은 청일전쟁을 통해서다. 1894년 여름 전쟁의 소문이 돌고 중국군인은 북쪽에서 남쪽에서는 일군이 닳아왔다. 전쟁속에 외국인의 철수를 서울에서 명했으나 마포는 그가 떠나면 어린 양떼들이 상심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과 같이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결국 교인들이 권하여 그가 할 일은 다했다고 판단되어 중국군인이 도착한 10일후에 서울로 떠났다. 이일로 인해 한국인은



선교사가 그들의 친구임을 확신하고 선교사를 향한 전체적인 태도가 바뀌어 마포의 사역의 기반이 확실해지고, 뉴욕의 선교부에서는 마포를 영웅적 행위의 모범으로 세우게 됐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평양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마포는 여기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친중도 친일도 아니고 오직 한국인인의 유익을 위해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장차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부가 될 기초를 위해 좋은 위치에 약 80에 이커의 땅을 매입하였다. 이로서 그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불리었다.

전쟁후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오고 그가 두 사람의 기독교인 직원을 데리고 옴으로 포교금지조항이 풀리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사신을 한국왕이 영접하던 영문문이 헐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졌다. 외형과 함께 한국인의 심성도 변형이 되어 갔다. 마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활발한 선교사업을 추진하여 교회의 존재가 평양과 주변에 느껴지게 되었다.

1895년말에는 정기적인 예배처소가 16곳, 가끔 모이는 데가 30곳이되었고, 교인이 100명이 됐다. 1896년 말에는 교인이 600명으로 늘어났다. 교인중에 떠나는 자도 있고 또한 천주교의 활동이 있어 교인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으나 선교부에서 채용한 한국인 조사는 한석진 한 사람 뿐이었다. 고로 보다 많은 한국인을 채용할 생각도 했으나 네비우스의 지혜를 따라 외국돈으로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선교사의 증원을 요청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영혼구원에 불타는 전도인”을 보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만이 이전에 미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한 모든 일을 한국에 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복음의 단순한 진리만을 선포해 왔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선교사가 보충이 됐으나 자라나는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였다. 이로서 마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지도자훈련반을 조직하고 조사, 교사, 지방교회지도자를 훈련하여 각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르치는 일을 하게 했다. 마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발견하고 그의 시간의 반을 지도자 훈련에 그리고 반은 지방 순회에 사용하였다.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지만 마포는 숫자에 보다는 사람들의 생애가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로서 마포는 성도들을 직접 접촉하며 철저하게 훈련하고 감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훈련을 통하여 마포는 멀지않아 한국교회의 치리와 운영을 한국인에게 넘겨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교회의 목회사역이 그의 첫째 과업이며 평양의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부가 있는 곳이라 교회를 신축할 필요가 있었다. 자금의 원칙에 따라 몇번이나 개축을 하던 끝에 1900년에 약 천명을 수용하는 장대현교회를 신축 봉헌하였다.

마포는 전도사업만 아니라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였다. 1894년 1월 처음 8명에게 세례를 한 후 초등학교를 기독교분위기, 기독교교과과정, 기독교교사들로 시작하여 전국에 세울 기독교회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동안 서울에 예수교학당 한 곳이 있던 것을 1897년 폐교했기에 중등학교가 없어 마포는 새원칙에 의거하여 1898년 평양에 중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미 천명의 세례교인에 3천명의 교인이 있기에 중학교가 필요하였다. 의료선교에 대해서는 처음 평양에 선교사의 거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포는 가족이 제공한 기금으로 병원을 시작하였는데 마포는 의료활동을 통하여 영적 전도의 일을 하는데 적절한 사람을 요

청하여 웰즈의사가 오게 되었다. 병원을 통하여 환자에게 전도사업을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으므로 언더우드도 평양의 의료사업에 대하여 전도사업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양의 의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되나 서울에는 정부병원과 관련되어 일하기에 마포는 서울에 있는 의료선교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급병원을 세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포는 또한 문서선교에도 힘을 기울여 많은 소책자를 발행하고, 특히 성경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성경번역 사업을 장로교공의회의 첫 과업으로 채택하여 1895년 10월 마태, 마가, 요한, 사도행전을 발행하고 같은해 찬송시도 발행하였다.

마포는 한국에 도착한 후 근 10년동안 독신으로 일하였다. 가족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느라 현장에 나가 오래 있지 못하는데 마포는 수개월씩 선교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지냈기에 쉽게 주민들과 친숙하며 일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마포의 성공이 그가 가족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은 것도 된다고 인정했다. 또한 마포는 개척의 일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했다 해도 가족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하였다. 마포는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생각했는데 1898년 의료선교사 엘리스 휘시가 평양에 파송되자 그들은 다음해 결혼하고 그는 이전보다 더 나은 봉사를 하게 되었다. 마포는 전략가로서 그리고 교회의 설립자로 닫힌 평양의 문을 열고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안정시키며 이제 그의 가정도 이루어 새로운 선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 라. 한국 장로교회의 교육자, 산파, 그리고 대변자 (1900-1910)

1900년은 평양선교부와 전 한국교회의 발전에 이정표가 되는 해였다. 1890년 마포가 한국에 도착하던 해에 평양에는 장로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10년후 한국인의 손으로 완성한 교회를 헌당하고 선교부 연차회의가 이곳에서 모였고 언더우드와 케일은 만장한 1200명에게 설교를 하였다. 전개의 보고에 의하면 세례 780, 총교인이 2300으로 전체교인 1430을 가진 서울을 능가하였다. 언더우드는 “이런 발전은 교회역사에 보기 드문 것이다”고 격찬하였다. 평양선교부와 이 교회는 의주, 선천, 용천, 황해도북부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평양교회가 자급으로 완성되어 헌당되자 마포는 이제 한국교회의 발전의 제 3단계인 자치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1900년에는 자치를 향한 훈련으로서 몇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첫째는 한국에 287교회가 되는데 장로나 목사가 아직 없고 조사와 영수가 목회자와 장로의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선교부에서는 조사들이 선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를 세우는 일을 허락한 것이요, 평양과 소래교회에 각 1인씩 장로 2명을 안수한 것이다. 둘째는 장로교 공의회가 처음으로 1901년부터 연차회의에 한국교회 대표자 10명을 초청하여 회의의 일부는 한국말로 진행하며 장로에게는 투표권을 허락하고, 노회구성을 내다보며 한국교회에 조금씩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셋째는 평양지방회의 요청으로 장로교공의회는 2명의 목사후보생 교육을 허락하여 1901년 1월 김중섭, 방기창 두학생으로 20년이 못가서 선교지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될 신학교육이 시작되었다. 마포와 배위량이 5개년 교과과정을 만들고 1년 3개월은 교실 수업을 하고 9개월은 실습을 하게 했다. 신학교의 위치에 대하여 마포는 철저하게 평양을 주장했다. 서울은 지리적 중심지이나 또한 모든 정치적 야망과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향이 많은 곳이요, 또한 돈과 건물이 성공적인 교육이 아님을 말하였다. 1904년에는 마포가 학장이 되고 학생이 전국에서 오게 되었다. 마포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자치하는 교회의 내일을 내다보면서 또한 교인들을 자치의 방향으로 훈련시켰다. 외국선교부 총무인 Arthur Brown이 평양을 방문한 때 장로 2인을 더 안수하여 장로 3인, 2명의 지도자, 5명의 집사로 제직회를 구성하고, 각 부서를 두어 실제 교회의 일을 하게 되었다. 또 그는 필라델피아의 와나메이커의 성경공부반의 모형을 따라 교인 매 10명에 권찰을 세우고, 또 100명위에 지도자를 세워 교인들과 학습자를 돌보게 하였다. 이외에도 겨울훈련반, 지방성경반, 여름훈련반, 여자반, 교사반, 신학반등 6종의 훈련반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평양은 조직된 남여 성경훈련반의 표본이 되었다.

1901년 장로교 공의회는 한국인 대표 9명이 처음으로 24명의 선교사와 같이 모였고 마포가 의장이 됐다. 목적은 교회의 절차, 교회의 실제적 일에 대한 토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호주선교사가 현의한 독립적인 한국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정치위원회 구성을 허락하고, 다음해 장로있는 교회가 12처, 3명의 목사가 안수 받으며, 노회를 구성할 때라고 보고 마포가 각국 교회와 연락하도록 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허락이 났으나 미국 북장로교는 한국장로가 적으니 외국교회가 될 것을 우려하고, 남장로교는 선교사들이 미국노회의 회원으로 한국교회의 처리를 받지 않은 문제를 들어 단독교회 조직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 때 마포는 독노회 조직은 어려움보다 유익이 많은 것과 연기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자치위해 한국교회를 훈련했는데 교회를 조직함으로 한국인의 신임을 받아야 하고, 노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한국인과 선교사를 이간하기에 연기할 수 없음을 말하며, 선교부의 안을 인정못하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허락을 촉구하였다. 이로서 북, 남장로교총회에서는 1905년 9월 24일 각각 한국의 독노회 조직을 허락했다.

1907년 신학교에서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하자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38명의 선교사, 36교회 대표 한국인 장로 40명이 모여 역사적인 독노회 모임을 개최하고 12시 노회조직을 선포하였다. 마포가 초대 노회장이 되었다. 노회가 한 첫 일은 신학교 졸업생 7명을 시험하고 목사로 안수하는 일이었다고, 이 안수는 신학교의 일을 교회가 인정하는 표였다. 이 날 학교이름도 신학반에서 장로회신학교로 개칭하고 마포를 학장으로 추대하여 그후 17년간 학장으로 학교발전에 헌신하였다.

1907년까지 마포와 이길함목사가 평양교회의 동사 목사였고 길선주가 조사였다. 그러다가 노회 첫날 길선주가 안수를 받아 마포는 그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와 이길함은 목사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그는 이제까지 애쓰던 이상, 한국목사, 장로 집사로 완전히 조직된 자급하는 교회가 실현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마포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한국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와 있는 만큼 능력있는 한국인을 보면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마포는 한국교회의 자치를 향하여 훈련하고 나아가 독노회 조직의 산파역을 했고, 이제는 태어난 교회를 세계에 대변하는 일을 하였다. 선교사는 복음의 대변자면서, 동시에 선교지 교회와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의 대변자가 된다. 마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와 한국선교를 알리었다. 민족복음화가 선교의 목적으로서 이것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유일한 목적이요 관심이요, 이교사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첫째요, 개혁이 구속이 아니고 교육이 중생이 아니기에 교육, 문화, 과학, 자선등은 항상 제 2의 관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큰 병원이 돈, 정력, 시간, 관심을 모두 차지할 것이기에 이는 오히려 한국복음화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선교방법보다 선교사의 확신이 복음화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음화의 5원리를 제시했다.

첫째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둘째는 복음

선포를 첫째 과업으로 하겠다는 선교사의 결단이요, 셋째는 기독교의 유익은 영적인 것이라는 확신이요 넷째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과, 다섯째는 선교사 자신의 영적 생활이라 했다. 그리고 그는 복음화의 방법을 여섯가지로 말했다. 첫째는 비공식 대화를 통한 폭넓은 전도, 둘째는 성경사용, 셋째는 학습반, 넷째는 초신자에게 전도열 고취, 다섯째는 성경훈련반, 여섯째는 훈련된 사역자의 개발이었다. 이런 원리와 방법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며 한국복음화에 몸을 바치면서 그는 한국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은 한국이 중국같은 상엽국가나 일본같은 무사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위대한 영력, 극동의 유일한 영력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였다. 마포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 있는 약 5,000명의 한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곳을 방문하였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의 지도를 불만하여 장로교 선교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와이는 감리교와 회중교회 지역이어서 장로교 선교사가 갈 수 없음을 알고 장로교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감리교로 가게됨을 보고 본부에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약 천명의 한국사람들과 그 중 1할정도의 성도들을 위하여 마포는 방기창장로의 아들 방화중을 사역자로 파송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였다.

1907년 마포는 LA의 임마누엘교회에서 라이만 스투어트를 만나 6천불의 출판기금을 오직 전도와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받아 신학교와 성서학원을 위한 많은 책들을 마포가 기금위원장이 되어 출판하였다. 1907년 마포는 한국선교의 발전을 위해 2년 이내에 의사 3명, 목사 17명, 전도와 교육을 위한 독신여자 20명을 증원할 것을 요청하고 이로서 미국에서는 한국지원(Korea Propaganda)이 시작되었다. 마포는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최대규모의 세계선교대회에 한국선교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한국선교의 정책과 결과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마포는 이런 많은 일을 성취하였으나 그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평양에 중학교와 병원을 서울에 보다 먼저 설립할 때, 서울에도 그것들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가 1901년 모교인 하노바 대학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받게 된 때 그는 그것이 벼락감투 같다고 표현하며, 그 학위가 업적을 봐서 주는 것이라면 그는 받을 자격이 없고,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감사히 받겠으나 한국선교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일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이요, 약한 것을 들어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은혜라고 겸손해 했다. 마포가 독노회의 초대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언더우드를 생각하며 그가 회장이 되어했다고 하며 그에게 전문을 보냈다.

1910년 에딘버러의 세계선교대회에 미국장로교에 배당된 56명중 현직선교사 12명 가운데 1인으로 마포가 초청된 때도 그는 놀랐으나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였다.

#### 마. 한국선교부 다수파의 지도자 및 확립된 정책의 기수(1910~1920)

1910년 한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박탈되고 합방이 된 때 일본화를 추구하는 일본앞에서는 일본통치를 찬동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됐기에 한국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입장은 미묘하였다. 정치 사회의 변화가 크고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기독교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더 푸른 초장을 찾아 이민을 감으로 교회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더욱이 선교사들은 기관선교에 더욱 힘을 쏟고 서울의 대학 설립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교회성장은 둔화되었다.

1909년부터 한국교회는 백만구령운동을 일으키고 개인전도를 강화하였는데 그 결과는 보통때와 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마포는 이 운동이 큰 각성이었고 합방의 좌절속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영적 영향을 주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마포는 1914년 12월 자기집에서 평양시내 교회의 연합당회를 모이고 대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매 2마일마다 세워 교인들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하니 이미 10분의 9의 교회는 2마일의 거리에 있고 나머지를 위해서는 3마일마다 교회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면서 마포의 교회관은 어느지역교회, 서방교회가 아니라 세계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였다.

마포는 전도의 일에 관련하면서도 그러나 이 기간에 중심적인 일은 신학교를 통한 활동이었다. 1915년에 이미 장로회신학교는 학생 25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 생산공장”이 되어 있었다. 마포는 Cyrus Mckormick부인을 만나 거액의 돈을 수차례에 기증받아 신학교의 시설을 확충하여 아름답고 시설 좋은 현대건물을 만들었다. 마포는 피어선기념 성서학원을 서울에 유치하고, 라이만 스투아트의 기금으로 지방 성서학원을 운영하게 됐다.

일본통치하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일본정부와 갈등을 가지는 것도 큰 문제나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사들간의 정책과 원리의 차이로 내적인 갈등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시기다. 마포의 평양에서 교육은 교인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에 근거하여 1906년 4개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가 연합한 대학이 고등학교에 2년 추가과정으로 생겼다. 이 학교의 목적은 한국을 기독교로 정복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909년 연합대학을 계획하였는데 평양의 선교사들은 반대하였다. 정관에 따르면 비기독교적인 것이 될까 우려가 된 것이다. 선교사의 경영, 매일예배, 매일성경공부, 전도열이 있는 교수진, 신자학생들이 없으면 선교학교가 명목적인 기독교학교로 변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뉴욕의 선교부가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인정하자 한국에서 보수인 다수파는 그 하나의 대학은 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과 평양은 지역적인 차이만 아니라 선교정책의 차이로 인하여 이제까지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린 한국의 정책이 무너진다고 반대를 하였다. 마포는 기독교 원리를 사회에 스며들게 만든다는 감리교의 교육정책을 서울선교사들이 따르기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뉴욕의 선교부에서는 한국에 선교를 가진 다른 교단과 의논하고, 한국선교부의 교육정책이 뉴욕선교부의 정책이 아니며, 일치와 협력원칙에 의해 서울에 대학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마포는 두가지 원칙에 의해 이를 반대하였다. 곧 선교지의 일은 선교지에서 결정한다는 것과 다수결의 원리에 근거하여 선교부의 결정은 실망적인 것이라 하고 1915년 3월 조선기독교대학이 조직된 때 한국선교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허락되어 언더우드와 밀러가 장로교 대표자로 참여하고 언더우드는 초대학장이 됐다. 1917년 5월 정부의 허가가 나왔는데 일본의 교육법에 따라 종교교육을 배제하였고 이를 뉴욕에서도 인정하였고, 한국선교부는 반대하였다. 한국선교와 뉴욕선교본부와의 이런 대립되는 관계는 결국 총회에 건의가 되어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케 하고, 1921년 미국장로교 총회는 선교부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자 한국선교부도 이 결정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마포는 선교부로 부터 신임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선교부의 총무인 부라운은 한국선교부가 모든 선교지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정책과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성격과 기질의 문제요, 바로 다수파의 지도자들이 모든 어려움의 진짜 이유라고 마포를 비난하였다. 다른 총무인 스피어도 1915년 한국을 방문하고 친일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마포가 그의 방문이 한국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고 했으므로 그 후 오랫동안 가졌던 우정이 상했다고 하면서 피할 수 있었으면 한국방문을 그가 하지 않았으리라고 했다. 누구나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올

때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는 한국 다수 선교사의 태도를 혹평했다. 이 시기는 모든 선교사에게 어려운 때였다. 1916년 언더우드가 죽자 그는 싸움에 지쳐 죽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까지 뉴욕선교본부에서 영웅으로 알려지던 마포가 서서히 고립화되어 가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선교사들은 선교정책으로 인한 내적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일본통치와도 갈등을 하게 됐다. 일본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환영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대개는 정치와는 중립적인 태도로 누가 통치를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비인도적인 강압정책 때문에 일본통치에 반대하는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포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직언하며 반대하는 표현을 했다. 일본의 소위 105인 사건을 만들어 한국기독교를 탄압하려 한 때, 마포는 경찰을 찾아가 체포된 사람들의 진실됨을 말하고, 나중 재판에 일일이 참여하여 경과를 기록하여 미국선교부와 영어세계에 알리었다. 일본의 교육정책과도 관련하여 마포는 철저하게 세워진 정책을 수호하며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제거하면 기독교학교가 아니라고 믿고 시행해 나가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1운동과 관련하여 마포는 1919년 3월 1일 평양국민학교 교정에서 있는 고종황제 장례 예행에 참석했다가 기대하지 않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국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을 목격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

3월 4일에는 시학 야마다와 같이 길을 가다가 길가의 선량한 시민이 일경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것과 젊은이들이 매를 맞고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3월 22일, 24일 양일에 완다나베판사와 서울신문의 야마다 등이 10명의 선교사를 초청하여 3·1운동의 이유와 선교사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듣기 위해 모였다. 선교사의 중립적인 입장과 선교사가 독립운동을 중지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선교사, 한국인이 공포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통치의 실패라고 지적하는 선교사가 있었다. 마포는 한국사람은 물질적인 것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 정의와 인간미에 더 가치를 두는데, 일본인의 물질개발주의가 한국인이 존중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무시하였기에 바로 그것이 저항운동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그뿐만아니라 마포는 목격자로서 그의 친구가 일경에게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맞는 것을 보고 분개한 사실을 말하며 그가 좋은 사람임을 변호했다. 마포는 자기집과 동료선교사의 집이 영장도 없이 무단 수색되고 선교사집에 거하던 학생이 변호사도 없이 형을 받게 된 사실들을 서울의 총영사에게 와 미국에 알려 이 사실의 뉴욕타임즈에 보도됐다.

마포는 일본인들의 부정과 만행을 목격하고 “그들은 문명되지 못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교활하게 속이고 있다.”고 했고 마포가 중심이 되어 있는 평양의 선교사들은 “일본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세계를 형성한다는 구실로 연방국과 함께 앉아 있으나 그 손은 약한 민족의 피를 짜고 있다.”고 했다. 마포는 어려운 시기 한국민과 하나님을 생활했고,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는 정금처럼 빛남을 보았다.

#### 바. 한국선교와 보수신학의 옹호자

독립운동후 일본은 무단정치에서 유화정치로 바꾼다고 했으나 고문과 탄압은 계속됐고 동양척식회사를 통하여 농민들을 수탈하는 정책을 하였다. 경제는 어려우나 현대의 편리함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더욱 많은 빚을 지다가 이민을 떠나는 현상이 생겼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공산주의 여러가지 철학사상 신신학이 들어오므로

교회도 벽돌건물을 바라고 이제까지의 영적인 면에서 물질적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포가 책임을 지고 있는 평양의 학교들이나 선교부의 학교들이 시설과 교사면에 있어 일본 공립학교에 비해 많이 열등하나, 일차대전후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미국에서의 모금도 용의치 않아 시설보완이 어렵고 성경교육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이 많았다. 시설과 교사부족으로 학생들의 스트라이크, 학생들의 자진 퇴교의 현상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마포의 꾸준한 노력으로 정부에서는 1923년 10년의 유예기간이 되기 전에 기독교학교에 대해 정부의 기준에 달하면 학교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마포는 그간 오랜 투쟁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았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의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것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동안 교회가 학생들에게 미친 도덕적 영향이 그들을 강하게 했다고 했다. 특별히 사회가 급변하는 혼란기 일수록 교육기관의 영적 생활강조는 필요했고 실제로 대학졸업자가 전국에 나가 각 방면에 훌륭한 지도자로 일하는 것을 보고 대학의 성격형성 교육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며 대학을 교육받은 목회자의 원천으로 육성하였다. 뉴욕의 선교부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한국선교부의 교육정책은 전도보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요, 지성계급을 교육하여 기독교정신을 사회에 침투하게 하자는 것이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비평하였다. 한국의 감리교 선교부도 될수록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미국에도 교육을 위해 보냈는데 마포는 가능하면 자기학교에서 장래 지도자를 훈련하고 외국에 보내면 자기학교에서 공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고, 마포의 학교에서 공부한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돌아와 교회봉사에 사용된다고 했다. 마포의 교육정책을 가진 숭실대학은 1925년 정부로부터 특수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학교의 영적 성격을 옹호하면서 신학교를 통하여 확립된 보수신학을 지켜나갔다. 맥코믹여사의 기부로 1920년 본관건립과 더불어 1년 2학기 3년제 교과과정을 확정하였고, 학교의 교리적 기초를 채택하였다. 곧 성경의 영감과 무오, 신앙과 생활의 표준, 삼위일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부활,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등이었다. 부라운 선교부총무는 한국선교사가 청교도적인 사람들이며, 한가지 종류의 신학과 체험을 한국에 소개하였고, 한국교회는 다양한 신학사상과 성서해석에 접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고 스피어총무도 일찍 1915년 방문시 이런 관심을 표현했다.

마포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고 장로교선부에서 일하던 게일이 신학교의 운영방침에 불만하여 1916년 교수직에서 사퇴를 하고, 감리교에서는 1916년 양주삼을 편집인으로 신학세계를 출판하여 고등비평을 자유롭게 소개하였다. 마포는 1918년 신학지남을 출판하여 대처하면서, 새시대에 새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마포가 너무 보수적이라 옛전통을 좀 버려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나 옛 복음에만 구원이 있고 새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에드먼드 부룬너의 한국 농촌교회연구를 예루살렘 선교대회에 보고한 때에도, 마포는 사회 발전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음을 말하고, 교육 개혁, 사회발전 산업진보가 인간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소식과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오늘의 필요라고 역설하였다.

마포는 그가 세운 선교정책과 방향을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 한국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보수적이었다. 그는 한국선교의 자치를 보기를 원하였고 길선주목사가 안수를 받아 그에게 목회의 일을 전적으로 넘겨 주었다.

그러나 노회를 조직할 때 마포가 기초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헌법은 선교사와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선교사는 본국 노회에 소속하여 치리를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교회 총회에 회원이 되나 한국교회의 치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선교사 3분의 2가 찬동하면 한국총회에서 탈퇴할 것으로 하였다. 선교사들은 이중회

원권을 가지고 일을 하나 한국교회의 처리를 받지 않으므로 한국교회를 형제교회로 보지 않고 야만교회나 열등교회로 본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선교사들은 총회에서는 탈퇴를 하려 하면서 학교와 기관은 지배하고 있었다. 신학교를 보면 1917년에 처음으로 한국인 3명이 이사로 들어갔고 1918년에 처음으로 길선주목사가 그의 목회 10년경험을 강의한 것 이외에는 한국인의 강의를 없었다. 마포가 1924년 확장에서 은퇴하기까지는 1923년 김선두목사가 처음 조교수가 되었다. 마포는 중국교회가 선교자금을 의존하면서도 기관과 자금을 그들이 경영하겠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급하고 있는데도 한국인에게 경영을 물려주지 않고 있었다.

1928년 예루살렘 세계선교대회가 열려 선교와 신생교회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한국에서는 감리교 대표 4명, 장로교 대표는 정인과목사 1인이 참석했는데 그는 한국 주일학교 연맹총무로 간 것이지 장로교의 회원이 아니었다. 이유는 장로교에서는 사람을 외국에 내 보내어 키우지 아니하여 영어를 말하는 지도자가 한두명밖에 없었다. 1910년 에딘버러 회의에 마포가 참석했을 때 그는 17명의 아시아 대표자와 한국의 윤치오를 만났고, 그 후 마포는 세계교회를 말하였으나 세계교회를 위하여 인재를 양육하지는 못하고 김제준의 말처럼 숨막힐듯한 분위기 속에서 정통의 통조림(밀폐)에 가두어 두었다. 한국의 감리교 대표자들은 국제대회에서 많은 발표와 토의에 참여하는데 한국장로교는 언론회원으로 참여한 마포외에는 전혀 말할 사람이 없었다. 1934년 한국선교 50주년 축하행사를 하는데도 교인 6만인 감리교에서는 양주삼, 김활란등이 강연을 하며 활동을 하는데 교인 25만인 장로교에서는 선교사들의 축하일 뿐 한국 사람은 아무도 강연이나 토의에 참여한 흔적이 없다. 1934년 1월25일 마포의 70회 생일이요 한국선교 44주년 잔치를 지나며 그는 형법에 따라 공식 은퇴가 되었으나 한국에 계속 남아 그가 일생 발전시킨 일들을 계속 감독하며 지도하기로 하고 다음해에 신학교에서 35년을 가르친 후 은퇴하였다. 그후 신사참배문제가 일어난 때 건강과 영력에 있어 더 감당할 수 없어 신학교 이사장과 수많은 학교를 설립자의 위치에서 물러나 1936년 10월 5개월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요양차 미국에 갔다. 그 후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하기보다는 폐교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다가 모두 폐교하였고 장로교총회는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었다. 슬픈 가슴으로 마포는 1939년 10월 24일 캘리포니아 몬로비아 자택에서 주님결으로 가게 됐다. 마포가 일생을 바쳐 복음의 원리에 따라 지켜온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는 신앙의 정조를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그가 지킨 신앙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운 일제를 항거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성도들은 교회를 재건하며 일으키는데 마포를 모범으로 삼아 오늘의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you have given to our family as we come back to Korea. And what a great privilege it is to be back. Now I really feel at home again, for Korea is my kohyang.

It is home for everything but my tongue which somehow refuses to speak Korean and keeps on speaking in English. I am Korea-born. I was brought up on the banks of the Taedong River beneath beautiful morang-bong, but I still can't speak Korean well! I have too quickly forgotten whatever I once knew. Please forgive me.

But I come back, as a filial son, to honor my father who landed here in Korea one hundred years ago. It was his twenty-sixth birthday, Jan 25, 1890. He had graduated from seminary in 1888, and though he wanted to go to the mission field, he took the pastorate of a little church in Missouri to test himself. If the people ask me to stay after one year, he said to himself, I will go to Korea as a missionary; but if they don't want me to stay, that will be a pretty good sign that God doesn't think I would make a very good missionary. How glad we are, as a family, that they did indeed ask him to stay, <sup>in Missouri</sup> and that he said, "No, you are very kind, but the Lord is telling me He wants me to go to Korea."

So now three of his five sons have come to honor him. The other two are in heaven. Four of the sons became ministers. Two of his daughters-in-law are with us, and a grandson who bears his name, Samuel Moffett, and <sup>was</sup> a great-granddaughter. All the rest of the family send greetings. Father now has eight grandsons, five granddaughters, 9 great-grandsons, and 8 great-granddaughters. We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your welcome and for remembering Ma Moksa who worked with you <sup>for so many years</sup> to build up for God's glory the great Korean church. The Korean church is indeed a miracle of God's grace.

What a wonderful 100 years this has been. Through them all the Lord has blessed us as a family, and has blessed you as members in Christ of one of the greatest Christian churches in the world.

Now about Samuel A. Moffett. I make no apologies for ~~having~~ speaking of "Moses". When I talk about my own father, I find it impossible to give a formal academic lecture.

(p. 1)

The Moffetts come from the town of Moffat in Scotland, that tiny, rocky northern country of poets and preachers and engineers. There was something of all three in my father--a poet's vision, a preacher's fire, and an engineer's gift for finding workable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1. Let me begin with <sup>poet's</sup> the vision. Moffett had enough of the lyrical Scot in him to take bagpipe records out to Korea, when Edison had invented his talking machine, so that his five sons would grow up to the sound of the pipes. But that is not what I mean by saying that his mission began with a poet's vision. Poetry to a Scots Presbyterian is more than music. It is theology.

Moffett's mission to Korea began with <sup>a</sup> that great and impossible dream that swept <sup>hundreds of</sup> American college students of the 1880s and 1890s into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Its slogan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Our Generation." At Hanover College in Indiana where he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college YMCA and tied for first place scholastically in his graduating class, he found that the student volunteers for mission were the most effective members of the YMCA. By the end of the century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was sending out 2000 missionaries a year for a while. Underwood at New Brunswick in New Jersey, and Moffett and Gifford and Baird and Swallen and Bernheisel at McCormick Seminary in Chicago were among the volunteers who came in the early years to Korea.

Theologically the ~~movement~~ is sometimes misrepresented as foolishly promising that the whole world would be converted in one generation. But those pioneers were not that naive. They were realists and theologically literate enough to know that it is the Holy Spirit who converts, not men or women. And the Spirit works when, where and how He pleases. No, that slogan,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Our Generation" was a vision, and a challenge, not a triumphalist ~~slogan~~ <sup>goal</sup> for converts. Their task, they believed, was simply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ose who had never been given a chance to hear it. And in those terms, it was not as impossible as it sounded. In fact, as Prof. Latourette's three volumes on the "Great Century of Missions", the 19th century, (in his History of Christian Expansion) so clearly shows, in not much more than their "one generation" those pioneers of a hundred years ago came nearer than most people realize to carrying the gospel and planting the church in every nation of the world. That is how the gospel came to Korea with those first Protestants in 1884. And how Moffett reached Chemulpo in January 1890. He had a vision. The Koreans in the Pyengyang area gave him a nickname, "The Looking Up the Road Man". He kept planning ahead toward his vision of all Korea <sup>related with the issue</sup> for Christ.

2. The Preacher's Fire. But it takes more than a vision to move ahead toward a goal. It was the powerful combination of that theological vision with the preacher's fire in him that took Moffett out of Seoul and sent him north into territory forbidden for foreign residence beyond the safety of the treaty ports, Seoul and Pusan.

Dr. Richard Baird once told me a story he heard from his father, that at one of the early meetings of Seoul station, Moffett came storming into the meeting and said, "The Lord did not send me to Korea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teaching the boys in that school (the small orphanage started a few years earlier which had been turned over to him for supervision in 1890) how to bound" the state of North Carolina!". That was how they taught geography, American geography, in those days, by taking a state and memorizing the names of all other states that touched it. Moffett who had already begun to revise the curriculum to include Chinese characters, and more Korean <sup>and</sup> background, was still dissatisfied. He was determined to reach out beyond the treaty settlements into the interior and live and preach the gospel there.

His first trip north was with Appenzeller, the Methodist. And he kept going back, trying to make a beachhead for the mission in the old capital of Pyengyang, famous for its wickedness, its beautiful "kisaeng", and its tiger-hunters. He was stoned in the streets on one occasion, but that was not unusual in Pyengyang which was also well-known for its great stone fights. The man who led the mob later became the Korean church's own first missionary, but that is another story. Anyway, after many attempts he was finally able to remain and begin settled residential missionary work.

The theology of his early preaching was very simple, and remarkably well contextualized, to use a later popular missiological word. They tell me he would stand up in the market place on a market day and begin by saying something like this: "I am not at all afraid of your evil spirits." Now every one was afraid of evil spirits in those days, <sup>and immediately</sup> the people would begin to listen. "I'm not afraid of the spirits", he would go on, "because I know the Great Spirit, God". There had been a dispute among the missionaries as to what they should call God in Korean. Some wanted to use the Chinese term, "Chon-Ju" (Heavenly Lord); but others, including my father, felt a Korean word would be better. <sup>They chose</sup> a little-used name of a spirit no longer associated with any organized religion or temple, the name "Hananim". So he said, "I know the Great Spirit, Hananim", and the market people liked its more familiar Korean sound. ~~and~~ "I'm not afraid of little evil spirits because "Hananim" loves me," <sup>he would continue</sup> "and if he loves me, no other spirit can hurt me. And the proof of his love is that he sent his only Son, Jesus, to die for me and save me." The people understood that kind of theology, and seemed more ready to hear it there than elsewhere. It was there in the northwest that the first great explosions of Korean church growth occurred, and Pyengyang, the city that had begun by stoning the missionary was soon being called "Yerusalem", the city of churches, because they thought a Christian city should be called by the name of the <sup>mother</sup> ~~birth~~ city of the Christian <sup>city</sup> Jerusalem.

Perhaps "fire" is the wrong word to describe Moffett's preaching. It was warm, and gentle, and winning. Not very dramatic. He was never a mass evangelist, but preferred one-on-one personal conversations with people about their lives and hopes, and about Jesus Christ, the living Lord <sup>and</sup> the <sup>and</sup> Hope of the world. *People used to say, "Moffett, you should get a car. You could get around to more people. But to the end of his days in Korea, he never owned a car. It would take me too far from too many Koreans I want to talk to about Christ," he said.*



such peace and joy as none of this world's material success can ever offer. And because his own ~~life~~ experience <sup>of perseverance</sup> Pyengyang matched all that he said, the people believed him.

b. <sup>The second</sup> ~~Emphasis~~ <sup>was</sup> on evangelism. He insisted that evangelism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the only work of the church that other ~~bodies~~ <sup>people</sup> of well-meaning people can do. Others can educate, heal, help and civilize, but only Christians can evangelize. "The preaching of the gospel," he wrote, is the God-ordained means to accomplish the mission to which Christ calls his church. "Education, philanthropy, civilization are not the object of evangelism, nor its means, but the result of evangelization." Of course medical work is extremely important. Jesus healed the sick and so should his disciples. But that is secondary to the preaching of the kingdom of God. Education is indispensable. At one point, Moffett insisted that every time a church was built, Christians should build a school next to it. He himself founded more than 200 schools, everything from primary schools, ~~to~~ and commercial high schools to a college and a seminary. Had not Christ called his disciples to "teach..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But education, too, is secondary, he said, and should not precede evangelism but follow it after the church is established, and should give priority to the nurture and growth of the Christian community.

c. And finally, emphasis on "Scripture as the standard of Holy Living". The theology of those early missionary pioneers in Korea is sometimes caricatured by modern revisionist historians as a narrow, intolerant, insensitive fundamentalism. But that is poor history. It judges the past by the present, and thereby distorts it. It wrenches <sup>the past</sup> out of its own context, and demands that it conform to <sup>modern</sup> contexts it never knew. That is like criticizing Socrates for ~~not being more~~ <sup>not being more</sup> to appreciate ~~Marx~~ <sup>Marx</sup>, or assailing Jesus for not leading a political revolution against the Roman empire, ~~like a modern freedom fighter~~. [Never mind that when Jews did revolt they lost their freedom forever, while paradoxically Jesus's non-violent spiritual revolution conquered Rome itself].

No, the early missionaries were not fundamentalists. Modern fundamentalism had not even been invented ~~yet~~ back in 1900. Moffett's theology was not fundamentalism, but 19th century evangelicalism. It was the theology of the great American Protestant consensus that grew out of the early great American "awakenings" of the 18th century. It was not divisive and polemic like the later 20th century fundamentalism that tore the American church apart into bitter, warring segments, liberals against conservatives, and modernists against fundamentalists. *It was evangelical in the best sense of that word.*

<sup>It's</sup> ~~Moffett's~~ theology had been formed in ~~a significant~~ part by the mediating spirit of his theology teacher, Professor Herrick Johnson of ~~Hanover College and McCormick Seminary~~, whose basic thrust was, "If the roots are sound, ~~the~~ differences in the leaves don't really matter". Johnson was conservative, but tolerant. At one point he even defended a book by Charles Briggs whom some were accusing of modernist heresy.

So also Moffett. He wrote, "There can be no compromise when there is a "Thus saith the Lord", but there is "the greatest liberty in non-essentials". William Blair (in "Precious Memories of Dr. Samuel A. Moffett") relates a revealing incident from a period when some members of the mission were trying to limit membership in the mission to premillennialists alone. Moffett himself was a mild, undogmatic premillennialist, but felt that ~~was~~ <sup>they were</sup> going too far. When he was asked, "But was there ever a time when you did not hope that Christ might return soon?", he hesitated, then said with a disarming smile, "Well, yes. Just before I was about to be married". The mission dropped its case against dissenters on non-essentials.

It was his emphasis on the authority of the Bible as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the last phrase, "of faith and practice" is important, and distinguishes evangelicalism from fundamentalism) that formed the theological roots of Moffett's involvement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of his successful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prohibition of teaching the Bible in Christian schools, and of his final, but unsuccessful, confrontation with the Japanese military on the issue of compulsory Christian attendance at Japanese shinto shrines. It was for this that after 46 years in Korea he was expelled by the Japanese. Like Luther he took his stand on Scripture, "No other gods before me", and like Luther he was ready to take the consequences.

I began by looking at my father as a Scot. But it is not his Scottish lyric vision for the church, nor the fire of his Scottish gospel preaching, nor his practical, Scottish common-sense theology that I want you to remember. I think I would rather have you remember that by the time he left Korea he was more Korean than Scottish. He lived only three more years after the Japanese forced him out, and in California <sup>for many years</sup> the people in the post office smiled and still remember <sup>him</sup> coming to the window and asking for stamps. "Sam ~~on~~ chari," he would say, and then shake his head when he saw their uncomprehending looks. After 46 years in Korea he was <sup>as</sup> ~~more~~ Korean as he was ~~than~~ American.

He had always lived in a Korean style house, ~~not a brick house~~. He lived alone in ~~Pyeongyang~~ <sup>the</sup> ~~with~~ <sup>the</sup> Koreans <sup>in</sup> ~~until~~ <sup>Pyongyang</sup> other Americans were able to join him for permanent missionary residence. And when he was finally asked to organize the church as more than a collection of separate Korean congregations under missionary control, he made sure that it would be a Korean church. With Kiel Sun-Joo, his student and closest associate, he labored to frame a constitution that would combine Biblical theology with Presbyterian representational, democratic government, and Korean independence with respect for Korean traditions.

He has been called the principal architec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He was elected its first moderator when the first ~~Korean~~ presbytery was organized in 1907 as a self-governing church. For years its first ordained <sup>Korean</sup> ministers were all his former students. <sup>^</sup> And they made it a Korean church.

I am proud to be his son. But ~~I am more proud~~ today as we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landing in Korea, and the 89th anniversary of his founding of this the first Protestant seminary in Korea, I am more proud of those students of his, and of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grandsons and granddaughters, and great-grandsons and great-granddaughters, and of what you have done during these past 100 years by the grace of God and the power of the Spirit. Through the Korean church you have changed Korea. And now through your own missionaries you yourselves are reaching out across the whole world. How things have changed since my father, as moderator of your first presbytery commissioned your first missionary, Yi Ki-Poong, 83 years ago, the man who had led the mob who stoned him in the streets of Pyenyang only 16 years earlier.

No one works alone for Christ. There are always those who have gone before, and those who come after, and the great work goes on. So I think, in closing that father might like me to say for him, something like this: Others planted--Saw Sang-Yoon, Dr. Allen, Underwood; I watered--and many will plant and many have watered after me. But it is God who gives the increase, and to Him be all the glory.

-- Samuel Hugh Moffett  
Seoul, Korea  
May 15, 1990

# 사무엘 오스틴 마펫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자녀들의 기억들.

본인의 가족을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한국말을 잘못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한국은 본인의 고향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란봉 밑에 있는 대동강변에서 자랐습니다.

본인은 100년전 한국에 오신 본인의 아버지에게 영예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90. 1. 25은 아버지께서 26세 되시던 해였습니다. 그는 188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곧 바로 선교현장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자신의 소질을 확인 하시려고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주리주의 교회교인들은 목회경력 1년이 지나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것을 원했지만, 본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만약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이 계속 한국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한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싸인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의 5 아들 중 3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예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다른 두 아들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4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 며누리가 우리와 함께 왔고 사무엘 마펫이라고 이름하는 손자와 증손녀가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안부 전합니다. 본인 아버지는 이제 8명의 손자, 5명의 손녀, 9명의 증손자, 그리고 8명의 증손녀를 가진 셈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랜 세월을 여러분과 보낸 본인 “마목사”를 환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에 한국에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선 여러분의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하나로 축복하셨고 본인의 가족도 축복하셨습니다.

마펫가는 스코트랜드의 마펫 마을에서 시작 되었는데 이 마을은 작고 바위가 많은 고지대로서 시인들, 설교자들, 및 엔지니어들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시인의 비존, 설교가의 열정,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자질을 모두 한 몸에 지니셨었습니다.

## 1. 시인의 비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펫은 한국에 나올 때 스코트랜드 고지대인들이 사용하는 피리소리를 담은 음판들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이 당시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가 이미 나와 있었다) 스코트인적인 서정적 소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5 아들들은 자라면서 이 피리소리에 늘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버지께서 시인의 비존을 가지고 선교활동에 착수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코트랜드 장로교인에게 있어선 시란 음악이상, 아니, 그것은 신학 그것이었었습니다.

마펫의 한국선교는 1880년대와 1890년대의 미국 대학생들을 학생자원선교운동으로 몰아넣었던 바 실현될 것 같지 않았던 큰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슬로건(표어)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였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이신 마펫은 인디애나주의 하노버대학에서 본대학 YMCA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졸업반때에는 학급에서 상위권에 들었는데, 이때 그는 선교를 자원하는 학생들이 바로 YMCA의 우수한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9세기말에 가서 이 대학생 자원선교운동은 얼마동안은 1년동안에 2,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한국선교 초기에 한국에 온 자원선교사들 중에는 뉴저지의 뉴부룬즈워의 언더우드, 시카코의 메코믹 신학교의 마펫, 기포드, 베이어드, 스왈렌, 및 베른하에젤이었습니다.

저 자원선교운동이 한 세대안에 전세계를 회심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종종 신학적으로는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선교의 선구자들은 그 정도로 우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사람(남성도 여성)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알만큼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니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라고 하는 슬로건은 비존이요 도전이었지 승리주의적 회개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사명은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라투렛 교회사가는 「기독교 확장사」중 19세기에 대하여 “위대한 세기”라는 제목하에 3권의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한세대”도 못 되어서 100년전의 선교의 선구자들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선교와 교회설립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1884년에 저 처음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마펫은 1890년 1월에 제물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비존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사람들은 나의 아버지에게 “도로인부”(The Looking up the Road man)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한국인을 복음화 시키려는 비존을 가졌습니다.

## 2. 설교가의 열정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비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펫은 신학적인 비존과 설교가의 열정을 겸하여 지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부산 등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복음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리차드 베이어드 박사는 언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본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즉, 마펫은 어느 초기 서울역 광장의 집회에서 “주님께서 본인을 한국에 보내신 것은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여생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마펫은 1890년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작은 고아원을 몇년 운영하였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당시 학교에선 지리, 특히 미국지리를 가르쳤는데 미국의 한 주를 선택하여 그 인접 주들을 기억케 하곤하였던 것이다. 마펫은 한문과 한국의 문화적 배경 등을 포함시켜 교과목을 이미 수정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이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마펫은 협약규정을 어기고 한국의 한 북판으로 파고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설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펫은 아펜젤라와 함께 북한으로 여행하였습니다. 마펫은 평양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기 위하여 계속 북쪽으로 여행했는데, 이 당시 평양은 “기생”과 “호랑이 사냥” 그리고 죄악이 관용한 도시였습니다. 하루는 마펫이 평양에서 돌에 얻어 맞았는데, 그 당시 평양은 큰 돌싸움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돌싸움을 벌린 어느 싸움패 걸이의 두목이 훗날에 한국교회의 첫번째 선교사(이기풍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펫은 여러번 시도를 거듭한 후에 결국엔 정착된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펫의 초기 설교신학은 매우 단순했으며, 오늘날의 선교신학의 개념을 사용하면 훌륭하게 맥락화된 설교 신학이었습니다. 마펫은 장날 장터에 나가서 “나는 여러분의 악령들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곤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누구나가 악령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펫은 이어서 “나는 가장 큰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령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들 사이에 하나님을 한국말로 무엇으로 불러야 할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었습니다. 어떤이는 한자로 天主(Heavenly Lord)라 부르기를 원했고 본인의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한글로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 하였는데, 이 “하나님”은 재래 종교의 영과 관계가 거의 없는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펫은 “나는 위대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시장터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익숙한 이 한글을 더 좋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작은 악령들을 무서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진덴 그 어떤 다른 영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심으로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같은 단순한 신학을 이해하였고 이같은 설교는 다른 곳에서 보다 이 시장터에서 더 잘 먹혀 들어 갔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성장이 크게 폭발한 곳은 바로 이 북한의 서북부에서 었습니다. 선교사를 돌로 침으로 선교가 시작된 평양은 급기야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열정” (불)이란 마펫의 설교를 묘사하기에 적합치 않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의 설교는 온정이 넘쳤고, 온유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청중을 위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과 그들의 삶과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선호 하였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펫, 당신은 차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차 주위로 모으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있을 동안 결코 차를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차가 있으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고 싶은 너무나 많은 한국사람들을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1906년과 1907년 복음의 대부흥운동이 불타 올랐을 때 마펫은 그것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절친한 한국인 친구인 평양의 길선주목사는 평양에서 곧 본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평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회심자들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조직하였고, 원산의 하디박사 역시 감리교인들을 모아 갱신을 위한 기도회를 갖기 시작 하였고, 본인의 아버지는 평양에 있는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 모두를 위해서 그와같은 최초의 기도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미국여행을 하고 계시는 동안 그와같은 기도 모임들은 감정적인 부흥집회로 돌변하였으니 당시 관찰자들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슬레이의 부흥운동과도 같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 다시 돌아 오셨을 때 어떤이들은 그의 침착하고 건실한 장로교신학이 한국교회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그같은 극적인 폭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의아히 생각하였습니다. 마펫의 신학은 첫째로 성경적이었고, 둘째로 장로교적이었습니다. “최초의 오순절은 성경적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갱신을 반대 하다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펫의 느낌에 의하면 그 당시의 부흥의 경험이야말로 당시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와 미국의 선교국을 모두 놀라게 했던 갑작스러운 한국교회의 성장을 청결케 하고 순화시키는 성령의 방법이었습니다.

### 3. 엔지니어의 실천력과 실용성

성장하는 교회에게 신학이 필요 했음을 마펫은 느꼈습니다. 마펫은 그가 세운 평양의 신학교에 신학훈련을

받을 두 목사 후보생을 받은지 1년이 지난 후, 즉 1902년에 북한에서의 12년 선교활동을 돌이켜 보았는데, 그 당시 교회의 놀라운 급성장을 기뻐하면서 그와같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일으킨 내적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복음을 그렇게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던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마펫을 미워했고, 돌로 쳤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쫓아내려 했고, 거듭 거듭 마펫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도시가 어떻게 2,000명씩이나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갖게 되었고(이 당시 평양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었다) 한때 최악의 도시였던 평양의 20마일 이내에 어떻게 해서 25개의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마펫이 1902년에 돌이켜 보면서 내린 결론에 의하면 그 이유는 3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셋은 그의 신학적 확신의 살아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펫에게 있어서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펫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의 소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과학의 진리가 온전해지려면 신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a. 첫째로 그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펫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물질적 성공은 복음의 기본 메시지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기주의란 전혀 호소력을 가질 수 없으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공과 기타 세상적인 다른 성공으로 인해서 복음의 궁극적 진리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승리하는 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과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죄를 승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와 영원의 차원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안일한 삶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난과 박해의 경험속에서도 이 세상의 물질적 성공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평양에서 마펫이 건넌 박해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b. 두번째로 그는 복음전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펫은 복음전도가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하였고, 이 복음전도야말로 교회 이외의 다른 인간단체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육, 치료, 원조, 문명화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복음전도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설교란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성취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교육, 인간애, 문명은 복음전도의 목적이난 수단이 아니요 복음화의 결과”라고 마펫은 말했습니다. 물론 의료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다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마펫은 언젠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그 옆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펫은 2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국민학교, 상업학교, 단과대학, 및 신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교육 역시 부차적입니다. 복음이 교육보다 앞서 와야 하고 교육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공동체의 양육과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c. 끝으로 마펫은 “거룩한 삶의 표준인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 선구자들의 신학을 편협하고, 관용성이 없고, 배타적이고, 감수성 없는 근본주의라고 조롱할 것일

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관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현재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과거를 과거의 맥락에서 이탈시켜 그것을 과거가 결코 몰랐던 현대적 내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맑스만 못했다고 비판하거나 예수께서 로마제국에 항거하는 정치적 혁명을 지도하지 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자유를 상실했지만 예수께서는 비폭력적 영적 혁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로마제국을 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초기 선교사는 근본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근본주의는 1900년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마펫의 신학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19세기 복음주의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18세기의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들”에서 성장한 미국개신교의 일치된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의 근본주의처럼 미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마펫의 신학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스승인 메코믹신학교의 헤릴 존슨의 중도적 입장에 의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이 존슨 교수의 기본 입장은 “뿌리가 건강하면 잎새들의 상이성은 하나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은 보수적이었으나 관용적이었습니다. 존슨은 찰스 브릭스의 책을 변호하기까지 했는 바 당시에 이 책은 현대주의라는 정죄를 받기까지 했던 책이었습니다.

마펫도 존슨과 비슷하였습니다. 마펫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가 있을 경우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non-essential)에 관하여는 최대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어(“사무엘 A.마펫 박사의 귀한 기억들”에서)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교사의 회원권을 전천년주의자들에게만 줄 것을 시도 하였던 시기로부터 한 사건을 들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펫 그 자신은 온건하고도 비교적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마펫은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희망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는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머뭇거리다가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으면서 “글쎄 그렇지요. 내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는 그랬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선교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마펫은 “신앙과 행위의 무오류한 유일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행위”라는 귀절은 복음주의를 근본주의로부터 구별시키는 중요한 귀절입니다. 바로 이같은 성경관 이 마펫의 현실참여 신학의 뿌리입니다. 예컨대 그가 1919년 3월1일에 일어난 한국독립운동에 관여한 사실,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하는 일본의 정책에 대하여 항거한 사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에서 참배케 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대와 충돌한 사실 중에서 우리는 위의 성경관이 그의 현실 참여 신학의 뿌리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현실 참여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한지 46년만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루터처럼 마펫은 그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되게 하였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은 없다”고 고백했으니, 그는 이 고백의 결과를 짊어졌던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스코트랜드 사람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한 그의 스코트랜드적 서정적 비준, 스코트랜드인의 복음설교의 열정, 그의 실천적이고 스코트랜드적인 상식 신학이 아니라 그가 한국을 떠날 즈음엔 스코트랜드 사람이라기 보다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에 의하여 축출당한지 3년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해 동안 캘리포니아의 우편국 사 람들은 마펫이 창구로 걸어서 우표를 사는 모습을 기억하였다. 종종 마펫은 한국말로 우편국 직원에게 우표

3장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럴때마다 우편국 직원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펫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46년후에 마펫은 한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마펫은 항상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미국인들이 자신의 선교활동에 참여하여 선교사 사택에서 함께 살때까지 평양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따로 따로 흩트러져 있는 한국의 개교회들을 선교사의 주도하에 조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의 한국교회를 조직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마펫은 그의 학생인 동시에 친구인 길선주와 더불어 성서적신학을 장로교의 대의적 민주정치와 조화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한국적인 전통들과 조화시키는 교회 헌법을 작성하려고 힘썼습니다.

마펫은 한국의 장로교를 세운 주된 건축가였습니다. 자치교회로서 1907년 최초의 노회가 조직되었을 때 마펫은 최초의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초의 안수받은 한국인 목사들은 여러해 동안 모두 마펫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본인은 마펫의 아들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상륙한지 100주년을 축하하며 그가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신학교를 세운지 89주년을 축하하는 오늘, 본인은 본인의 아버지의 학생들, 이 학생들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증손자와 증손녀들과 지난 100년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룩된 모든 것에 대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여러분의 선교사들을 세계 도처에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최초의 노회의 노회장으로서 83년전 이기풍 목사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웠든 바, 이 이기풍 목사는 불과 16년 전에 평양의 거리에서 본인의 아버지를 돌로 찢던 싸움패걸이의 두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홀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간 선배들이 있고 뒤에 올 후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사는 계속 진행中에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즉, “서상운, 알렌박사, 언더우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심을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내 뒤를 따라 물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 오직 모든 영광은 그에게 만!”

사무엘 Hugh 마펫  
한국의 서울에서  
1990. 5. 18  
이형기 역

TO: DR. YONG GIL MAENG, PRESIDENT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SUNGDONG-KU  
SEOUL, 133-756 KOREA

FROM: G. THOMPSON BROWN, DECATUR, GEORGIA, USA APRIL 30, 1990

Lecture for Samuel Moffett Day, May 18, 1990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SAMUEL MOFFETT AND THE NEVIUS PLAN

One hundred years ago, June 7, 1890, Dr. and Mrs. John L. Nevius, veteran Presbyterian missionaries to China, came to Seoul. They had been invited by the seven young Presbyterian missionaries just beginning their mission work. The young missionaries had read some articles Dr. Nevius had written and thought he might be able to give them some advise as they began their mission work. Dr. and Mrs. Nevius stayed in Seoul about two weeks and then traveled on to Pusan on their way to Japan. Some have called the Nevius visit the most influential two weeks in the history of 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Dr. Samuel Moffett had been in Korea only a few months when Dr. and Mrs. Nevius arrived. He was \_\_\_\_\_ years old. Nevius was 61. One was just beginning: the other nearing the end of an illustrious missionary career. The conversations made an indelible impression on the younger man. He writes of the experience in these words:

From his rich twenty-five years of experience, Dr. Nevius talked to us young men and planted in our hearts the seed thoughts of main principles. From him came the two great principles in our work--the Bible Class system and self support...From these talks and from his book on Methods of Mission Work, the Korea Mission derived inestimable benefit--although, in the development of these ideas, local conditions and our experience...led to great modifications. (Clark 1937:84)

The Nevius Plan, as it came to be called, was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early Presbyterian missionaries and in 1891 it was written into the rules of the mission. In 1896 the rules were strengthened so that each missionary, even in the use of personal funds, was required to follow the Plan. Dr. Nevius's little book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was required reading for all new missionaries. Each was given a copy on arrival in Korea. Dr. Moffett led the way in applying the Plan in the planting of churches in Pyongyang. When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arrived in 1892 they followed the example of their Northern cousins and adopted the Nevius plan. I can remember that when I arrived in 1953 being told that the "Three Selves" of the Nevius plan (Self-Government, Self-Support, and Self Propagation) were the principles by which we must work. The Bible, The Nevius Plan and the good taste of Kimchi--here were three things that were not to be doubted!

Dr. Charles Allen Clark in his book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n Korea makes the case that the Nevius Plan was the principle reason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 growth of the church in China was much, much slower because the missionaries there had rejected the Plan which Dr. Nevius had tried to put into effect. It was too radical for the China mission. Dr. Clark analyses other reason often given for the rapid growth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se may have been helpful but he concludes with these words:

Humanly speaking, the Nevius Methods have been the final determining factor in the results attained in Korea. (Clark 1937:270)

Over fifty years have now passed since Dr. Clark made his study of the Nevius Plan in Korea. This occasion, when we are honoring the arrival of Dr. Samuel Moffett in Korea, might be a suitable occasion for a new look at the Nevius pla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I say this for three reasons.

(1). First, This year is not only the centennial of the arrival of Dr. Moffett in Korea: it is also the centennial of the historic visit of Dr. Nevius to Korea. One hundred years have now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vius Plan. Tremendous changes have now taken place. The Korean Church has grown to a degree that could not even have been imagined by Drs. Moffett and Nevius. Its time for a reappraisal.

(2). But there is a second reason for a new look at the Nevius Plan. Across the Yellow Sea in the land where Dr. Nevius labored and where he tried to put into effect his plan, a revolution and a rebirth have taken place. The revolution came in 1949 with the coming to power of the Communist. Late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76) all the churches in China were closed. The rebirth came in 1979 when the Christian churches were reopened and were filled to overflowing with people. For the past ten years churches in China have been begun (or reopened) at the rate of about two a day! And the remarkable rebirth has been under the leadership of what is called "The Three Self Movement" (Self-Government, Self-Support, and Self-Propagation). Here is the same old watchword of the Nevius Plan! The question we need to ask: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the 100 year old Nevius Plan and the church that has emerged from the shadows of the Cultural Revolution?

(3). There is a 3rd reason why it is appropriate to look again at the Nevius Pla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now engaged in its own missionary enterprise.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re now serving in at least 20 countries of the world. What are the policies and plans by which they will work? Does the Nevius Plan which played so important

a role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ity in Korea have anything to contribute to the world-wide mission program of the PCK? And so let us now proceed with the question:--

### WHO WAS THIS MAN JOHN L. NEVIUS AND WHAT WAS HIS PLAN?

John and Helen Nevius arrived in Ningpo, a port city in southern China in the year 1854. They were young "newlyweds" having been married a few months before they sailed from Boston to Shanghai in a sailing ship around Cape of Good Hope. Their ship was buffeted by storms most of the way and the journey took six long months. Ningpo was one of the "Treaty Ports" which been opened to the residence of foreign traders and missionaries following the end of the "Opium War". Ningpo was the first place where the American Presbyterians began to work and they had been there about ten years when the Nevius's arrived. The progress of the work was very, very slow.

After four years, John and Helen Nevius moved to Hangchow, which was just being opened. But anti-foreign feeling was so strong that they were forced to leave. Mrs. Nevius's health broke down because of the hot, damp climate and the Mission Board transferred them to work in Japan. But Nevius could not forget his call of the Lord to work in China. And so after some months in Japan he proposed that they be transferred to North China where the climate would be better for Mrs. Nevius and where additional "treaty ports" had recently been opened. In 1861 they moved to Tung-Chow, a port city on the northern coast of Shantung Province. John Nevius traveled widely throughout Shantung preaching the gospel in country villages. Mrs. Nevius established a school for girls.

These were difficult years for mission work in north China. In 1862 five of the Nevius's missionary colleagues and four missionary children died during a cholera epidemic. It was a time of revolution and change. Bandits roamed the countryside. From time to time there was violent opposition to the presence of the missionaries. At such times when their lives were in danger the missionaries appealed to their government for help and on several occasions they were evacuated by British or American gun boats. But the call for the gunboats did not help. It simply increased the resentment and hostility. In later years, Nevius said their policy was never to appeal for help to ask help from the gunboats. It was a lesson well learned.

In 1871 Dr and Mrs Nevius move to the port city of Chefoo. It was here that they lived the longest and did their most effective work. In 1877 a terrible famine swept through Shantung Province. For the next year Nevius did famine relief work, traveling far and wide with grain and money to help destitute villages. This experience may have been a turning point. They were now usually welcomed by villagers wherever they went.

Nevius was a man with many new ideas. He urged the mission



to begin a theological school for the training of Chinese ministers. He proposed that a Synod of all China be formed. When the synod was formed in 1870 he was elected the first moderator. Nevius advocated closer relationships with other denominations. He wrote a number of books including one entitled China and the Chinese and another on demon possession. He worked on a manual for workers in village churches that was used all over China.

Sometime in the mid 1870s he began work in a new country field some three hundred miles inland from Chefoo. This gave him an opportunity to develop a new plan for starting churches. In 1880 he wrote to the Board Secretary in New York: "I am trying to make the work independent and self supporting from the first." (Helen Nevius, 1895:381) This was a revolutionary new idea. The traditional method for starting churches had been to build the church with mission funds and then send in paid Chinese "helpers" to do the preaching. In time it was hoped that the subsidies could be reduced and the churches would become self-supporting. But it hadn't worked that way. Once the subsidies began with foreign money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the churches not to keep on depending on foreign aid. As long as some were being paid to do evangelistic work, it was difficult to get anyone to do it on a volunteer basis.

Nevius's plan was very different. The Christians would be asked to provide their own places of worship--generally a large room in a private home. Worship was led by volunteer Christians who lived in the village. These leaders would be given training in the annual Bible Classes held in a central place. Church leaders who attended the Bible Classes would be provided food and lodging while in training and transportation expense to get back home again. Where it was necessary for the lead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more than one meeting point, some financial help would be provided. Nevius usually had two paid assistants. All the others were volunteers or those paid by local churches. It was a large field with a population of about three million and extended several hundred miles in each direction. Nevius visited his churches twice a year--usually on a three months trip in the spring and again in the fall. He traveled the long distances by wheelbarrow, horse, or on foot.

Nevius wrote that his principles were the results of years of experience and bitter failures. He also felt that he was following scriptural principles and was working the same way as the Apostle Paul. He put great emphasis on such verses as 1 Cor 7:20 "Let each man abide in the calling wherein he was called". Christianity should disturb as little as possible the social relations of its adherents. To take a new believer out of his calling, whether he was a farmer or shopkeeper and pay him to do the work of witnessing to Christ often did more harm than good. The use of foreign funds for all this made it appear that Christianity was a foreign religion dependent upon foreign funds under the control of foreign agents. (John L. Nevius, 1899:19)

Nevius felt it was more important for a Christian to excel in his own business and thus demonstrate the viability of Christianity to non Christians than to become a professional Christian who received his living from foreign agents. (Nevius 1977:24). More emphasis was put on teaching than on the public preaching of the Word. Converts were instructed in the catechism, in Bible memory work and in prayers. After attending services for six months they were eligible for baptism.

As the years went by, Nevius felt that his new plan was succeeding. The number of meeting places increased to over 60. One thousand adult were baptized in the first seven years. On one country itineration trip in 1883 he baptized a total of 208 adults and more than 20 children.

But the long country trips were exhausting and as he grew older Nevius found he had difficulty keeping it up. In 1887 he resigned his country churches and devoted all his time to teaching and writing. It was his hope that younger missionaries would carry on as he had done, but apparently this did not happen. So the Nevius "experiment" came to an end after not more than 10 to 12 years. Three years after the historic visit to Korea that we have described, Nevius died rather suddenly at his home in Chefoo and was buried in the missionary cemetery overlooking the Yellow Sea. He was 64 years old.

\* \* \* \* \*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Nevius Plan had much effect on mission policy in China. Many articles appear in the Chinese Recorder on the lack of self-support and the need for stewardship education. A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self-propagating church was everybody's goal but it was assumed that this would only come in the later stages of missionary work. The genius of Nevius's plan, where it sharply parted company with the prevailing policies of the day, was that there should be "Three-Self" church from the very beginning.

Seven years after Nevius's death, Dr Calvin Mateer, a colleague of Nevius in the Shantung Mission, wrote a review of the Nevius Methods in which he severely criticized the plan. (Clark: 44) He claims that the success of the plan, as claimed by Nevius, was an illusion. The results were not lasting and after Nevius's death the mission had to go back to the old methods in order to salvage the situation.

Who was right--Mateer or Nevius? After 100 years its hard to say. The fact is that in China the plan was not used over a long enough period to make a judgement. And for it to succeed it would have needed the full support of the whole Shantung Mission--which it never received.

In 1927 Robert E. Speer and Hugh T. Kerr made a survey of the mission work in China, Korea and Japan for the Mission Board.

The Survey is critical of the policies of the China missions in regard to the matter of self-support. Speer writes that at times he and Dr. Kerr were "driven nearly to despair in discussing the ideal of self-support with Chinese groups" and he found some of the missionaries just as difficult to deal with. They had become so accustomed to the use of money and found it much quicker and easier to rely on foreign funds than push for self-support. They did find one Lutheran mission which was using with good results the "old, much antagonized but apparently indestructible ideas of the "Nevius Plan". (Speer & Kerr 1927:287).

The findings of the survey was that "Clearly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the failure to develop a self-supporting Presbyterian church in China. They compare the statistics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China with those of Korea. At that time there were only 32 self-supporting churches in all the Presbyterian China missions. In Korea there were 547 self-supporting churches! (Speer & Kerr 288) Truly an amazing comparison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the Presbyterian work in China began 47 years before it began in Korea!

\* \* \* \* \*

What can we now say about the Nevius plan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 The Nevius Plan did make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s a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and self-propagating church. Dr Clark's major thesis developed 50 years ago still stands.

And yet we must remember, as Dr. Moffett said they made great modifications in the plan. One of these was certainly made by Dr. Moffett himself in the field of theological education. One of the criticisms of Nevius was that he did not believe in a trained ministry. (Clark:49) This was hardly the case for Nevius was one of the first in the Shantung Mission to advocate the founding of a seminary. But this was blocked because they could not agree on its location. Mrs. Nevius writes in 1895 (35 years after the work had begun in Shantung) there was still no theological seminary and that this was a great loss for the church. (Helen Nevius 291). The development of theological education in China certainly lagged far behind Korea. In Korea due to the pioneering work done by Dr. Moffett that we are celebrating today, just 23 years after the missionaries first arrived the first class of the seminary had been graduated.

(2). But there were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Nevius Plan which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hich Dr. Clark either minimizes or ignores. One of these would b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Christianity itself that can not be attributed to any foreign source. Christianity grew and developed the way it did in Korea because of the unique religious,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And this can not be attributed to any foreign missionary method. Consider, for example, the early translations of Scripture into Hangul and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hrough traveling Korean Christian from Manchuria. This was even before the arrival of the missionaries. Some Korean church historians would attribute the growth of Christianity in Korea to the early morning prayer meetings. They did not get from Nevius and certainly not from the missionaries!

There is another factor which Dr. Clark hardly mentions which certainly helps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Christianity grew faster in Korea than in China.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 China as a part of the colonial system from the West. The rights of the missionaries were protected by the unequal treaties signed as a result of the Opium Wars. From time to time they were defended by British and American gun-boats. In the eyes of many patriotic Chinese, Christianity was identified with the colonial system. Christian converts were considered agents of a foreign power. Chinese patriots said: "one more Christian meant one less Chinese."

But again in Korea it was very different. The colonial power in Korea was not one of the so called "Christian" countries of the West, but Japan. And the cause of Christianity was identified with the cause of independence and freedom for the Korean people. One half of the signers of the Independence declaration of 1919 were Christians and most of these were Presbyterians. Again and again missionaries took the side of Koreans against the Japanese oppressors. Here again a prime example would be Dr. Moffett. In the Conspiracy Trials of 1912 an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his identification with Korean patriots is well known. He was elected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in 1919 for any Korean elected to that position that year would have had his life in danger. The missionaries were able to rouse worldwide public opinion against Japanese militarism which held in check to some extent Japanese atrocities.

In short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was this: In China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were seen as opposite forces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In Korea they were seen as mutually supportive. How important it is for the Christian movement not to become identified with any colonial systems of oppression!

(3) A Third Observation: The Nevius Plan was designed for work in the pioneer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Christianity in a predominately rural society. One can not assume that it will fit all the situations today. Today we must deal with the high cost of land, high rise apartment complexes, and standards of living. All this means that initially more money must be invested in the planting of churches in any urban setting. And because of higher educational expectations, it is more important today to start with an educated clergy.

Today, one should not try to reduplicate all the details of the Nevius system but we should look at the principles which lay behind the plan. The indigenous nature of Christianity, the necessity for relating the Gospel to the local context, the importance of not making Christianity dependent upon foreign funds or leadership--these principles which grow out of the Nevius plan are as good today as they were 100 years ago.

(4). A fourth observation. We need to ask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 advocated by Dr. Nevius 100 years ago and the current "Three Self Movement" in China today. Each emphasizes the same words: Self-support, self-government, self-propagation. But is there is difference?

The leaders of the Three Self Movement in China today have not, to my knowledge, mentioned the name of John L. Nevius or commented on the plan to tried to introduce 100 years ago. I am not sure that they are acquainted with his writings. They trace their movement to its beginning in 1949 when the communist regime took over China and it became necessary for Christianity to come to terms, in some way, with the new masters of China. The founder of the movement was, Y. T. Wu, who got the "Three-Self Principles" from early Protestant missionary writings.

From the writings of Bishop K. H. Ting, the president of the Three-Self Movement in China today, it is possible, I think, to make some comparisons between the Nevius Plan and the Chinese Three Self Movement today.

Bishop Ting would, I think, would applaud the general directions of the plan but would say that it did not go nearly far enough. Ting is appreciative of the work of the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but criticizes the missionary movement because of its close links with the colonial system and the "unequal treaties" that were forced on the Chinese people by the Western powers.

To be a true Chinese "Three-Self Church" the church must not only rely on its own financial resources but it must be develop Chinese cultural patters, Chinese art forms, Chinese hymn tunes, Chinese theology.

Whereas Nevius put his primary emphasis on "self-support", the advocates of the "Three Self Movement" today would put the emphasis on "self-government". It wasn't just the dependence on foreign funds that deprived the church of its self-hood, it was the fact that missionaries were to slow to turn over the control of church agencies and institutions. This was certainly much slower in China than it was in Korea. Even in the churches begun by Dr. Nevius, the election of elders by the local congregations did not come until 1884--at least 10 years after he had initiated his plan. (Helen Nevius 415)

Today the Chinese "Three-Self Movement" insists that the

Church must stand on its own and rely on its own resources. It does not ask for and will not accept any foreign funds for its administration, its maintenance, its institutional life. It does however, cooperate with churches and friends from abroad who wish to join with them in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life of the Chinese people in educational, medical, and social service projects.

(5). One more question must be raised. What contribution can the Nevius Plan make for the present World Mission program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oday no one plan could possible work in all the different countries to which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s sent its missionaries. But the principles which lay behind the Nevius Plan do have relevance today.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people to whom we take the gospel! How necessary it is to avoid all foreign elements that might become stumbling blocks! A high priority must be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local leadership in each location!

The success of the Nevius Plan was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it had the near unanimous support of all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who followed through in its applic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 plan, any plan, is better than no plan! Perhaps a danger facing the World Mission enterprise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that its work will proceed haphazardly. Individual missionaries may do good work, but the results of what they do might be multiplied by a consistent plan that all would support ove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The Korean Church in its missionary outreach has a distinctive contribution to make to the cause of world evangelization. You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e world mission program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e have been in the business a long time. We have developed all kinds of mission plans and policies and "guide-lines" and procedures and manuals. Too many in fact! What we lack is your enthusiasm and zeal. Maybe by putting together our love of plans with your enthusiasm and zeal we can help each other--and advance the kingdom of God!

Dr Samuel Moffett in a report to his home board seventy-five years ago speaks to us today. (S. A. Moffett and J. E. Adams, 1914:11) He speaks of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their "consistent, unwavering, and almost unanimous support" in following the Nevius Plan. He speaks of the results which were achieved in Korea which proportionately were higher than those achieved by any other Presbyterian missions in other lands. But above all he speaks of the "ardent evangelistic character of the Korean Church". Without this, even with the best of plans, nothing could have been accomplished!

## BIBLIOGRAPHY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Moffett, S. A. Presentation of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in the Chosen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Paper printed for private use and not for Publication). 1914.

Nevius, Helen S. Coan. The Life of John Livingston Nevius. New York: Revell, 1895.

Nevius, John L. China and the Chinese.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2.

\_\_\_\_\_.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Philadelphia: Reformed and Presbyterian Publishing Co., 1899.

Speer, Robert E. & Kerr, Hugh T. Report on Japan and China of the Deputation sent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o visit these fields and to attend a series of Evaluation Conferences in China in 1926. New York: Board of Foreign Missions, 1927.

1990년 5월 18일 마포삼열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강연회

강연자 : G. Thompson Brown

## 마포삼열과 네비우스 선교방법

100년 전인 1890년 6월 7일, 장로교의 노련한 중국 선교사들인 존 L. 네비우스박사 부부가 서울에 왔다. 그들 부부는 이제 막 선교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일곱명의 젊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았다. 그 젊은 선교사들은 네비우스박사가 쓴 몇몇 논문들을 읽고, 박사가 선교일을 시작하는 자신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네비우스박사 부부는 서울에 약 2주간을 머물다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부산에 들렀다. 어떤 사람들은 네비우스의 방문이 한국의 장로교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주간이라고 했다.

네비우스박사 부부가 왔을 때 마펫박사는 한국에 온지 겨우 몇달 밖에 안되었다. 그 때 마펫의 나이는 ( ) 살이었으며, 네비우스박사는 예순 한살이었다. 마펫박사는 이제 막 시작 하고 있었는데 하면, 네비우스박사는 빛나는 젊은 마펫박사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마펫박사는 그 경험을 이러한 말로 쓰고있다 :

네비우스박사는 당신의 그 풍부한 25년간의 경험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요 원칙들에 관한 씨앗이 되는 사상을 심어주셨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업무에 대한 두가지 위대한 원칙을 주셨다: 곧 성경 공부반 제도와 자립의 원칙들이다... 비록 이 생각들의 발전에서 지역적인 여건들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많은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 선교는 이 대화와 「선교의 방법」이라는 그의 책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입었다(Clark 1937 : 84).

초창기 장로교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방법을——이렇게 부르게 되었다——열정적으로 채택했으며 이 선교방법은 1891년에 선교의 규칙들로 쓰여졌다. 1896년에 이 규칙들은 강화되어서 각 선교사들은 심지어 개인적인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그 선교방법을 따라야 했다. 네비우스박사의 작은 책자인 「선교 교회의 설립과 발전」은 모든 새로운 선교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선교사들마다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그 책을 한권씩 받았다. 마펫박사는 평양에서 그 선교방법을 교회 설립에 적용하는 일을 지도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1892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채택했다. 내가 1953년에 도착했을 때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3자」(자치, 자립, 자전)는 우리가 이것에 입각해서 일해야하는 원칙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성경과 네비우스 선교방법, 그리고 김치의 그 좋은 맛은 이곳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었던 세가지였다!

찰스 알렌 클라크박사(Dr. Charles Allen Clark)는 「한국 선교 업무의 네비우스 선교방법」이라는 그의 책에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한국 장로 교회의 급속한 발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중국에서 교회



성장은 훨씬 더 느렸는데, 왜냐하면 네비우스박사가 실행하려했던 그 선교방법을 그 곳 선교사들이 배척했기 때문이었다. 그 선교방법은 중국 선교에는 너무 급진적이었다. 클라크박사는 한국에서 장로 교회의 급성장에 흔히 부여했던 여타 이유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말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영튼 그는 이러한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인간적으로 말해서, 네비우스 방법은 한국에 이룩한 성과에 최종의 결정적 요인이었다(Clark 1937 : 270).

클라크박사가 한국의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연구한지 이제 50년이 더 지나갔다. 사무엘 마펫박사의 한국 도착을 기념하는 이 마당에 네비우스 선교방법과 또 그 정책과 한국 선교의 성장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다. 내가 이를 말하는 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1) 첫째, 올해는 마펫박사의 한국 도착 100주년일 뿐 아니라 네비우스박사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의 100주년이기도 하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소개된지 이제 100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엄청난 변동들이 일어났다. 한국 교회의 마펫박사와 네비우스박사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 재평가해 볼 때이다.

(2)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는 두번째 이유가 있다. 황해 건너편에 있는 네비우스박사가 수고했던 땅, 또 그가 그의 선교방법을 실현시켜 보려했던 그 땅에 혁명과 부활이 일어났다. 혁명은 1949년에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일어났다. 그 후, 문화혁명(1966-1976)기간에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폐쇄되었다. 부활은 기독교 교회들이 재개되고 사람들로 넘쳐나게 가득 찼던 때인 1979년에 왔다. 과거 10년동안 중국에서 교회는 하루에 약 2개 꼴로 개척(또는 재건)되었다! 또한 그 팔목할만한 부활은 이른바 “3자 운동”(자치, 자립, 자전)의 지도하에 일어났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바로 그 옛 표어가 여기 있다!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100년된 네비우스 정책과 문화혁명의 그 망령에서 벗어난 교회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3) 왜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다시 보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세번째 이유가 있다. 한국 장로 교회는 이제 자체적인 나뉠대로의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 장로 교회의 선교사들은 지금 적어도 30[37개국]여개국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 선교사들은 어떤 정책과 계획으로 활동할 것인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한국 장로 교회의 세계 선교 정책에 기여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질문을 계속 논의해보자.

## 존 L. 네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의 선교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존 네비우스와 헬렌 네비우스는 1854년도에 남부 중국의 한 항구 도시인 닝포에 도착했다. 그들은 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하는 배로 보스턴에서 상하이까지 항해하기 몇달 전에 결혼한 젊은 “신혼 부부”였다. 그들이 뒀던

배는 항해 도중의 대부분을 폭풍우와 싸웠으며 그래서 그 여행은 여섯달이나 걸렸다. 닝포는 “아편전쟁”의 종식에 이어 외국 상인들과 선교사들의 거주지로 개항했던 “조약 항구들” 가운데 하나였다. 닝포는 미국 장로교인들이 일을 시작했던 첫번째 고장이었으며 네비우스 부부가 도착하기 약 10년 전부터 그들은 닝포에 있었다. 일의 진척은 아주 느렸다.

4년 후에 존 네비우스와 헬렌 네비우스는 그때 막 개항하고 있던 항조우로 옮겨갔다. 그러나 반외국인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 무더운 기후 때문에 네비우스부인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래서 선교 본부는 그들 부부를 일본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네비우스는 중국에 일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 몇 달 있는 후에 그는 기후도 네비우스부인에게 더 좋고 또 추가로 최근에 “조약 항구들”이 개항되었던 지역인 북중국으로 이전시켜 줄 것을 신청했다. 1861년에 그들 부부는 산둥성의 북부 해안에 있는 한 항구인 등조우로 옮겨갔다. 존 네비우스는 시골 마을들에서 복음을 외치며 산둥 전역을 두루 여행했다. 네비우스부인은 여학교를 설립했다.

북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기간은 어려운 때였다. 1862년 네비우스부부의 동료 선교사들 가운데 다섯명과 네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콜레라가 유행하던 때에 죽었다. 그 때는 혁명과 변동의 시대였다. 산적들이 시골지역을 활보하고 있었다. 때때로 선교사들이 체제에 대해 폭력적인 반대가 있었다. 그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은 자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고 또 몇번은 영국이나 미국 군함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군함에 청원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로지 원환과 적대감만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후년에 와서 네비우스는 그들의 선교방법은 결코 군함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원조를 호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특특히 배웠던 한 교훈이었다.

1871년에 네비우스부부는 항구도시인 제푸로 이사한다. 그들이 가장 오래 살았고 또 대다수의 효과적인 사업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1877년에 무서운 기근이 전 산둥성을 휩쓸었다. 그 다음 해에 네비우스는 빈궁한 마을들을 돕기 위해 곡식과 돈을 가지고 사방을 두루 여행하며 기근 구조 사업을 했다. 이 경험이 아마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다. 그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마을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일쑤였다.

네비우스는 많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중국인 목사들의 훈련을 위한 신학교를 창설하기 위해 선교를 강행했다. 그는 전 중국 교회의 총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1870년에 그 총회가 결성되었을 때, 네비우스가 그 첫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네비우스는 다른 교단들과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책과 귀신 들림에 관한 또다른 한권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중국 어디에나 있던 마을 교회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었다.

1870년대 중엽의 언제쯤 그는 제푸에서 내륙으로 약 300마일쯤 들어간 곳인 새로운 시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방법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1880년에 뉴욕에 있는 본부 간사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처음부터 일을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Helen Nevius 1895 : 381). 이는 하나의 혁명적인 새로운 생각이었다. 교회 개척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선교 기금으로 교회를 짓고 나서 설교하는 일을 하도록 급료를 지불한 중국인 “조사[전도인]들”을 파견했다. 얼마까지 않아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또 교회들은 자립을 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보조금이 외국돈으로 시작된 다음에 교회들이 계속 그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어떤 이들이 전도일을 하는 댓가로 급료를 받고 있는 한에는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매우 달랐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예배 장소—대체로 개인 집의 큰 방이었다—를 마련하도록 했다. 마을에 사는 자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인도했다. 이 지도자들은 중앙에서 개최된 연례 성경반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성경반을 다닌 교회 지도자들은 훈련 비용과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식사와 거처를 제공받게 되어 있었다. 지도자가 하나의 기도처보다 더 많은 개척지를 책임져야 한다면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있었다. 네비우스는 대체로 급료를 주는 두사람의 조사들을 데리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자원자들이었거나 지역에 있는 교회가 급료를 주는 사람들이었다. 약 3백만명의 인구를 가졌고 또 사방으로 수백마일에 걸쳐있는 넓은 지역이었다. 네비우스는 일년에 두번씩 그의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대체로 봄철과 또 가을철에 3개월씩 여행했다. 그는 먼 길을 손수레, 말, 또는 도보로 여행했다.

네비우스는 그의 원칙들이 오랜 경험과 쓰라린 실패의 결과물이었다고 썼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성서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 꼭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의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와 같은 구절들을 대단히 강조했다. 기독교는 신자들의 사회 관계들을 가능한 한 적게 방해해야 한다. 그가 농부이든 상점주인이든, 한 새 신자를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 불러내어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댓가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종종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입혔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외국의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를 외국 기관의 통제 밑에서 외국돈에 의존하는 하나의 외국 종교로 보이게 했다(John L. Nevius, 1899 : 19).

네비우스는 어떤 기독교인이 외국 기관에서 생활비를 받는 직업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에서 남보다 뛰어나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생활력을 예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Nevius, 1899 : 24). 말씀을 공중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일을 한층 더 강조했다. 회심자들은 교리문답으로, 성경을 외우는 일로, 기도로 교육을 받았다. 6개월동안 예배에 참석한 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몇해가 지나면서 네비우스는 자신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느꼈다. 개척 장소의 수는 6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일천명의 어른들이 첫 7년동안에 세례를 받았다. 1883년에 어떤 시골로 갔던 순회 설교 여행에서 네비우스는 총 208명의 어른과 20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긴 시골 여행은 지치게 했고 또 네비우스가 늙어가면서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다. 1887년에 그는 그의 시골 교회들을 물러나 모든 시간을 가르치는 일과 저술하는 일에 바쳤다. 더 젊은 선교사들이 그가 하던 대로 계속 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으나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내지 12년 남짓 지나서 네비우스식의 “실험”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위에서 기술했던 그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한 3년 후에 네비우스는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황해가 내려다 보이는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4세였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중국의 선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자립의 결여와 청지기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중국 기록지」에 실려있다. 자치적이고 자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전파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었지만 선교사역의 후기 단계에서만 이룩되었을 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그 천재성은—그 곳에서 당시의 보편화되어있던 선교방법들과 첨예하게 대립되었다—시초부터 “3자”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비우스가 사망한지 7년 후에 산둥 선교에서 네비우스의 동역자였던 칼빈 매티어(Calvin Mater)박사가 네비우스 방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Clark 44). 매티어박사는 그 선교방법의 성공이 네비우스가 주장했듯이

하나의 환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네비우스가 죽은 후에 그 선교는 구제를 위해 옛 방법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누가 옳았는가? 매터어인가 네비우스인가? 100년이 지난 후에도 말하기 어렵다. 사실, 중국에서 그 정책은 판단할 만큼 충분한 기간동안 사용해 보지 못했다. 또한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동선교회로부터 완전한 지원이 필요했었는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1927년에 로버트 E. 스피어와 휴 T. 키어가 선교 본부를 위해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선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다. 그 조사연구는 자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선교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스피어는 자신과 키어박사는 때때로 “중국인 집단[그룹]들과 자립의 이상을 논의하면서 거의 절망에 빠져들었으며” 또한 그는 몇몇 선교사들도 똑같이 그 이상을 다루기를 어려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다. 그 선교사들은 돈을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또 자립을 강권하기보다는 외국 자급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한 루터교 선교회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해묵은 또 매우 적대를 받아왔지만 분명히 지워버릴 수 없는 사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Speer & Kerr 1927 : 287).

그 조사연구가 발견해낸 것은 중국에서 자립적인 장로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장로 교회 통계와 한국의 통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 당시, 장로교 중국 선교회를 통털어 단지 32개의 자립 교회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국에는 547개의 자립 교회들이 있었다(Speer & Kerr, 1927 : 288). 특히 중국에서 장로교의 역사가 한국에서보다 47년이나 일찍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놀라운 비교가 된다.

이제 네비우스 선교방법과 한국 장로 교회에 기여한 네비우스 정책의 공헌에 대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가?

(1)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 장로 교회가 자치, 자립, 자전 교회로 발전하는 데 전무후무한 공헌을 했다. 50년 전에 나온 클라크박사의 주요 논제는 여전히 건재해있다.

그리고 마펫박사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 선교방법에 많은 수정을 가했음을 여전히 명심해야 한다. 이 수정 가운데 하나는 확실히 마펫박사 자신이 신학교육 분야에서 실행한 것이었다. 네비우스에 대한 비판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훈련받은 목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었다(Clark 49). 네비우스가 산동 선교회에서 신학교의 설립을 지지한 첫번째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는 사례를 볼 때 이것은 거의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신학교 설립은 입지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어서 무산되었다. 네비우스부인은 1895년(산동에서 일을 시작할지 35년이 지난 후였다)에 그 곳에는 아직 신학교가 하나도 없으며 이는 교회의 큰 손실이라고 쓰고있다(Helen Nevius 291). 중국에서 신학교의 발전은 한국에 비해 확실히 훨씬 뒤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마펫박사의 그 개척 사업 때문에 첫 선교사들이 도착한지 겨우 23년만에 신학교의 제1회 졸업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한국 장로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한 요인에는 네비우스 선교방법 이외에도 클라크박사가 과소 평가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이 요인들 가운데 한가지는 다른 어떤 외국 사례에도 있을 수 없는 한국 기독교만의 뛰어난 특질들이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한국인의 그 특이한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들 때문에 그와 같이 성장했고 또 발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외국의 선교 방법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찍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것과 또 만주에서부터 여행하던 한국 기독교인을 통한 기독교의 전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심지어 선교사들이 도착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몇몇 한국 교회사자들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장을 새벽 기도회 모임의 탓으로 돌린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네비우스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않았으며 또 확실히 선교사들에게서도 얻지 않았다.

클라크박사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기독교가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빨리 성장했던 사실을 설명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기독교는 중국에 식민지 체계의 일환으로 서구로부터 도입되었다. 선교사들의 권리는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인된 불평등 조약들에 의해 보호되었다. 때때로 영국과 미국 군함들이 그 선교사들을 지켜주었다. 많은 애국적인 중국인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식민지 체계와 동일시되었다. 기독교로의 회심자들은 외세의 앞잡이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애국자들은 “한사람 더 많아진 기독교인은 한사람 더 적어진 중국인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에서는 매우 달랐다. 한국에서 식민지 권력은 소위 서구의 “기독교”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일본이었다. 또한 기독교의 주의주장은 한국인들을 위한 독립과 자유의 주의주장과 동일했다. 1919년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의 반수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장로교 교인이었다. 선교사들은 몇 번이고 일본의 압제자들을 대적하여 한국인들의 편을 들었다. 여기에서 또 다시 가장 으뜸가는 하나의 본보기는 마펫사였을 것이다. 1912년 모반사건 공판들에서와 1919년의 독립운동에서 마펫은 한국의 애국자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는 1919년에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그 지위에 선출된 한국인이면 누구든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적해서 일본의 잔학성을 어느 정도 규제했던 범세계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이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서로 대치하는 적대적인 반대 세력들로 비춰진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둘이 상호 후원하는 세력으로 보여졌다. 기독교가 압제적인 어느 식민지 체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3) 세째,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전적으로 농촌 사회인 곳에서 기독교의 발전 시초 단계들에서의 사역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 정책이 오늘날에 와서 모든 상황에 맞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높은 토지 가격과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또 향상된 생활 수준을 다루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어느 도시적 환경에서나 교회의 개척에 처음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층 더 높아진 교육상의 기대 때문에 교육받은 교역자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욱 더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네비우스 체계의 세세한 것들까지 모두 따라하려고 해서는 않되지만 그 정책 이면에 깔려있는 원칙들을 살피는 것은 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토착적인 본성, 복음을 그 지방의 형편과 관련시킬 필요성, 기독교를 외국의 자금이나 지도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 등, 네비우스 선교방법에서 유래하는 이 원칙들은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4) 네째, 네비우스박사가 100년 전에 주장했던 선교방법과 오늘날 중국에서 유포되고 있는 “3자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둘 모두 똑같은 말인 자립, 자치, 자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래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내가 알기에, 오늘날 중국에서 3자 운동의 지도자들은 존 L. 네비우스라는 이름을 들먹인 적이 없었고 또 100년 전에 도입하려고 애썼던 그 선교정책에 대해 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지도자들이 네비우스의 저술들을 알고있는지조차도 확실치 않다. 그들은 그 운동의 발단을 공산정권이 중국에 들어섰던 때이고 또 기독교가

중국의 새 주인들과 어쨌든 꼭 화해해야 했던 때인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그 운동의 창시자는 Y. T. 우(Wu)씨였는데, 그는 “3자 원칙”을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저작들에서 뽑아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네비우스 선교방법과 오늘날 중국의 3자 운동에 관해 현재 중국에서 3자 운동 의장인 K. H. 텡(Ting)주교의 저술들을 가지고 몇가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텡주교는 그 선교방법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극구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즉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텡주교는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식민지 체계와 선교 운동 사이의 친밀한 연관성과 서양의 강대국들이 중국인들과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들” 때문에 선교 운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진정한 중국인의 “3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자체의 재정에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문화 유형, 중국 예술 양식, 중국 찬송가곡, 중국 신학을 개발해 내야 한다.

네비우스는 “자립”을 가장 강조한 반면에 오늘날 “3자 운동”의 지지자들은 “자치”에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 이는 교회에서 자기 정체를 박탈해간 외국 자급에 의한 종속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교회 기구들과 기관들의 통솔권을 천천히 이양하려고 한 그 사실에 있었다. 확실히 자치는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느렸다. 네비우스박사가 세운 교회들에서조차도 그가 자신의 정책을 주창해낸지 적어도 10년 후인 1884년에서야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들을 선출하게 되었다.(Helen Nevius 1895 : 415).

오늘날 중국의 “3자 운동”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발로 서서 자체의 재원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의 행정과 유지, 제조상의 존속을 위해 어떠한 외국 자금을 청해서도 안되며 또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 의료, 사회 봉사 사업들에서 중국인들의 생활에 이바지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해외의 교회들과 친구들과는 협력한다.

(5) 한가지 질문을 더 제기해야 하겠다. 한국 장로 교회의 당면한 세계 선교 정책을 위해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선교방법으로 한국 장로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한 제각기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이면에 깔려있는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민족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모든 외래적인 것들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각 지역에서 지방의 지도력을 키우는 일에 높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네비우스 정책을 꾸준히 적용해주었던 한국의 모든 장로교 선교사들이 거의 전원 일치해서 그 정책을 지원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 선교방법은 어떤 정책이든 아무 정책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한국 장로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이 직면하고 있는 한가지 위협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일을 막무가내로 진행시키는 것일 것이다. 개개 선교사들이 일을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선교사들이 하는 일의 성과는 모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지해온 일관된 선교방법이 있다면 그 선교방법을 통해 배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그 선교적 역량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팔목할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한국 교회는) 미국 장로 교회의 세계 선교 프로그램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선교 계획과 정책, 선교 “지침”과 절차, 그리고 안내서들을 개발해 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열의와 열정이다. 우리의 선교정책에 대한 애착과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합친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마펏박사는 75년 전에 선교 본부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S. A. Moffett과 J. E. Adams 1914 : 11). 그는 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따름에 있어서 그들의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그리고 거의 합심적인 지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어떤 장로교 선교회들이 이루었던 성과들보다 한국에서 비례적으로 더 높이 이루었던 성과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 교회의 열렬한 전도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열렬한 전도 특성이 없었다면 심지어 가장 좋은 선교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n Korea.*

Seoul :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Moffett, S. A. *Presentation of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in the Chosen(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Paper printed for private use and not for Publication). 1914.

Nevius, Helen S. Coan. *The Life of John Livingston Nevius.* New York : Revell, 1895.

Nevius, John L. *China and the Chinese.*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2.

\_\_\_\_\_.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Philadelphia : Reformed and Presbyterian Publishing Co., 1899.

Speer, Robert E. & Kerr, Hugh T. *Report on Japan and China of the Deputation sent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o visit those Fields and to attend a series of Evaluation Conferences in China in 1926.* New York : Board of Foreign Missions, 1927.

# 마포삼열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서 정 운

(교수, 선교학)

우리의 선교방법이 교회성장에 좋은 영향과 함께 나쁜영향도 미쳤다. 한국교회 성장에 이같은 영향을 미친것은 선교사들이었다. 제대로 쓰여진 마포삼열의 전기가 출판되면 그가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이룩하게한 선교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확신한다. 그때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sup>①</sup>

Roy Shearer

## I. 시작하는 말

교회성장의 요인을 간단히 한 두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한 사람의 선교사의 활동을 그 지역의 교회성장과 결부시켜 어느 정도의 객관성있는 관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단순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서구교회의 근대선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한 교회로 평가되고 다양한 성장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거론될 뿐 아니라 그같은 과정에 관련된 선교사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포삼열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나 선교사의 사역의 결과와 영향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록 한정된 자료나 안목에 국한 되긴해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교사의 활동은 위대하게 기억되고 그 영향은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계속된다.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닦은 바울의 선교, 근대 개신교선교운동을 본격화시킨 윌리엄 케리의 선교, 버마 복음화의 선구자 A. 저드슨 및 중국선교의 독창적인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등은 그들의 생애로 뿐 아니라 그들이 끼친 영향으로 위대한 자취를 후대에 남겼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마포삼열도 우리에게는 그같은 부류의 인물로 회상되어 왔다. 마포삼열은 그의 25번째 생일이 되던 1890년 1월 25일에 모든 면에서 혼란하던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1936년 72세의 고령으로 신사참배문제로 어수선하고 흔들리던 한국교회를 두고 갑자기 귀국할 때까지 46년이라는 그의 전 생애를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헌신 하였다. 끊임없는 전도활동으로 평양을 중심한 서북지방을 우리나라의 최대기독교권으로 만들었고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선출되는 등,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지

<sup>①</sup> Roy Sherear, "The Evangelistic Missionary's Role in Church Growth in Korea," I.R.M., Vol. LIV, No. 216, Oct. 1965. p.468.



도적인 역할을 했던 걸출한 선교사로 그의 일생은 “한국교회의 아버지요, 거리의 사람으로 불리운 복음의 거인이었다.”<sup>②</sup>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한국교회 성장에 큰 기초를 놓은 생애였다.

## II. 한국교회의 성장

1세기의 로마제국의 상황이 복음전파에 유리한 조건들이 무르익었다는 견해가 있거니와<sup>③</sup>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19세기말에서 20세기로 이어지던 시기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복음흡수에 좋은 여러 여건들이 조성되었던 때였다. 처음에는 대원군하에서 일어났던 잔혹한 천주교박해와 토마스목사순교사건 등의 영향으로 복음전파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로 신증을 기하였다.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던 알렌(H. Allen)에게 미국장로교 선교부의 엘린우드(Ellinwood)는 한국의 사정이 매우 불투명함으로 신중히 처신할 것을 당부했었고<sup>④</sup> 마포삼열은 입국한지 두달 정도 지나서 1890년 3월 18일에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현재로는 우리 일에 대한 반대의 징조가 없으나 우리의 처지나 국왕의 지위가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정변이 일어나서 20년 전에 2만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자가 다시 권좌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sup>⑤</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활동은 정부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자리를 잡아 나갔고 교회개혁과 성장도 진행되었다. 선교사들이나 선교부측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교회는 초기부터 너무나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였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스피어(Robert E. Speer)가 1898년에 쓴 보고서에 이같은 구절이 있다. “북쪽에서의 교회는 너무나 급속도로 퍼지고 팽창해 가므로 이 추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라고 본다. 교회는 곳곳이 인산인해이다.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다.”<sup>⑥</sup> 이같은 보고는 과장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이 증가하는 교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sup>⑦</sup> 급성장의 실태에 대하여 서명원(Roy Shearer)은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1896년까지 교인수가 그 전해에 비하여 3배가 되었고 2년후에는 다시 4배로 증가하였다. 즉, 1895년에 78명에서부터 1898년에는 1,058명으로 불었다. 이들은 세례교인만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1898년에는 전교인 수가 3,000명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같은 경이적인 성장은 불과 3년안에 1,000%나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sup>⑧</sup>

초기부터의 이같은 급성장의 추세는 중국에 갔던 초대 개신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처음으로 중국신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고 저드슨이 버마에서 6년만에 그곳 사람에게 세례를 준 사

② 마포삼열박사전기, 마포삼열박사전기 편찬위원회(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3, p.381.

③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Grand Rapids: Eerdmans, 1970), 1장 참조.

④ E.N.Hunt, *Protestant Pioneers in Korea*(New York: Orbis, 1980), p.17.

⑤ Samuel A. Moffett, *Lettle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Seoul: March 18. 1890).

⑥ Martha Huntley,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한국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역, 목양사, 1985), p.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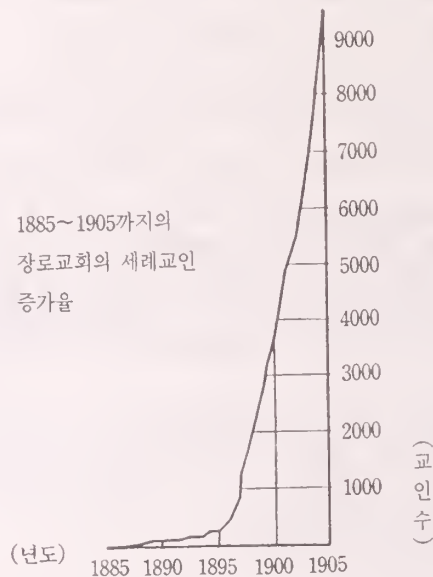
⑦ Roy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Grand Rapids: Eerdmans, 1966), p.117.

⑧ *Ibid.*, pp.117-118.

레나 태국에서 초기 장로교 선교사가 18년만에 태국 본토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sup>⑨</sup> 이같은 선교현장의 일반적인 상태를 이해했던 당시의 선교운동가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부흥과 성장은 경탄할만한 것이었다.

19세기말에 시작되어 세계의 개신교선교운동의 주력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의 지도자였던 존 모트(John Mott)도 1907년에 종로의 Y.M.C.A.회관 기공식에 왔다가 우리나라 교회를 보고 한국을 선교의 무르익은 추수장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만일 선교가 적절하게 계속되고 확장된다면 불원장래에 한국은 비기독교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sup>⑩</sup>라고 예언했고 이 세대안에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을 보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⑪</sup> 학생자원운동이 야심만만하게 내 걸었던 이 세대안의 세계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라는 구호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낭만적이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던 그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그같은 이상의 실현가능성을 느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아래도표는 초기의 우리교회의 급성장추세가 어떠했던가를 쉽게 알게 한다.



이같은 성장추세는 1914년까지 계속되다가 한일합방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이민의 증가 등으로 1910년대에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1919년의 3·1운동직후에는 교회성장이 다시 생기를 띠었고 1938년까지 한국장로교회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추세를 고수하였다. 신사참배강요 등 일본당국자들의 교회탄압의 강화와 선교사들의 철수 및 제2차 세계대전의 돌발 등으로 교회 지도층이 와해되고 시국과 교회사정이 혼란해 지면서 교회는 현상유지도 어렵게 되었다.

초기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⑨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Grand Rapids, Baker, 1974), p.155.

⑩ The Korean Mission Field. Vol. 4.(May 1908), p.65.

⑪ John Mott, Address and Papers, Vol. III. SVM for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Press, 1946, p.310.

첫째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공허했다는 점이다. 불교, 유교 등에 대한 불신과 무의미성을 느끼고 있을 때 새로운 신앙이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마니 스틱한 신관에 하나님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잇점도 지적되고 있다.<sup>12)</sup>

둘째는 나라가 허약하게 무너지는데 대하여 백성들이 받은 정서적 충격과같은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는 것이다.<sup>13)</sup> 송길섭은 교회가 ‘독립운동의 에네르기 및 조직의 제공자’<sup>14)</sup> 역할을 하여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셋째로 서구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작용하였던 면이 있다. 대국으로 믿었던 중국이 서구화된 일본에 패하는 것을 본 후에 서구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생겼던 차에 기독교가 전래되자 쉽게 수용하였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개화개혁의 에네르기’로써의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넷째는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속에서 보호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과 관련을 맺고 싶어 하였다. 그들 밑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곤혹스럽게 생각 하였다. 복음의 핵심이 그같은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형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불안정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기저기 무엇을 찾아, 지지와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 이것이 복음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무엇을 주어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싶어한다.<sup>15)</sup>

불안한 심리가 절대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게 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양주삼은 “국내가 물 끓듯하며, 또한 정치문제로 전국인민이 안정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때에 부흥이 처처에 일어나며 신을 의지하려고 교회로 들어 오는 사람이 많았다”<sup>16)</sup>고 하였다.

다섯째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며 동일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에서 선교운동이 저조했던 이유로 부족전쟁과 알력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문화 때문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이 교회성장을 저해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의 동일문화라는 잇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전파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용이하였다.

여섯째는 한글의 역할이 지대한 작용을 하였다. 많은 선교지에는 선교사들이 성경번역에 오랜 시간과 힘을 쏟아야 했고 언어문제로 성경보급이 여의치 못하여 선교에 지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한글을 이용하여 성경이나 전도지를 보급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번역되었는데 이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곱째로 서구의 식민지확장과 선교가 동일시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현지인들이 기독교를 서구의 제국주의와 연관시켜 반민족적 종교로 거부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sup>12)</sup> Spencer J. Palmer, *Korea and Christianity*(Seoul : Hollym, 1967), pp.7-8.

<sup>13)</sup> K.S.Latourette,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Vol. III. London : Eyre & Spottiswoode, 1961), p.448.

<sup>14)</sup>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p. 82-83.

<sup>15)</sup> W.F.Bull, "Era of Great Thing of Korea," *The Missionary*, September 1905, p.455.

<sup>16)</sup> 양주삼, *조선남감리 교회*, 1926, p.6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p.222에서 인용.

비서구세력의 위협과 압제중에 선교가 진행되었고 상당기간 동안 기독교 학교나 교회가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한완상이 지적한대로 나라의 자립과 자강(自強)을 외쳤던 사회세력이 반일본체국세력으로 그 성격이 뚜렷해졌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세력과 민심이 교회에 수용되었던 것이다.<sup>①</sup>

여덟째는 선교방법에 기인된 성장요인이 컸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선교방법은 다른 지역에서 통용된 방법과 같은 점도 있으나 네비우스 방법의 준행 등, 독특한 면도 있는데 그같은 선교방법이 교회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한국인의 마음밭과 정치, 사회적 여건들과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국교회의 전도 등을 성장요인으로 말할 수 있으나 한국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교회 성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서명원이 그의 책, 한국교회성장사(Wildfire : Church Growth in Korea)의 서문에서 한국교회성장은 연구하면 할 수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 이상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sup>②</sup> 술회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교회는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한국전쟁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열과 신학적 혼미에 빠지긴 했으나 고난과 비극적 상황을 돌파하여 성장태세를 갖추었고 1970년대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난국을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 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최근에 열거된 세계의 20대 교회중에 5교회가 들 정도로 강력한 교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up>③</sup> 역사적으로 복음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극동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나라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20대 교회중에 5교회나 포함될만큼 급성장을 했고 서울의 몇 몇 교회의 성장추세가 현재처럼 계속되면 20대 교회에 우리나라의 몇 교회가 더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지속된 교회성장의 요인도 대체로 초기에서 본 요인들과 흡사하고 그같은 전통을 답습한 것과 교회성장학의 영향 등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마포삼열과 한국교회 성장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한 중에 마포삼열이 끼친 영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많은 이유들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했으나 마포삼열이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를 주도한 지도적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교회성장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외한 모든 교회성장의 요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로 나타났다.<sup>④</sup> 마치 농사를 지을 때 토양과 종자와 기후조건이 적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 어떤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 성장과 추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좋은 선교사가 좋은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① 한완상,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인들의 가치관," 숭진대학교 논문집, 7권 1편, 1979. p.364.

② R. Shearer, *op. cit.*, p.9.

③ John N. Vanghan, *The Worlds 20 Largest Churches* (Grand Rapids : Baker, 1984)

④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Ventura, CA : Rogal, 1976), pp.55-67.

그가 우리나라 교회에 끼친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학교육과 전도와 선교정책을 고찰하되 그 중에서도 선교정책(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 A. 선교사 마포삼열

그의 선교활동과 선교원리를 말하기전에 선교사로서의 그가 미친 성장의 영향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는 ‘전달자-전달(communicator-communication)’이라는 말대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포삼열에 대하여 헛트리(Martha Huntley)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포삼열은 몇줄의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떤 말로도 그의 사람됨을 적절히 묘사하기가 어렵다. 그는 적극적이지만 언더우드처럼 열정적이진 않았고 법을 따지고 식별력이 강했으나 알렌처럼 가시가 돋힌진 않았다. 아펜셀러보다는 열정적이 못되었으며, 게일만큼 영리하거나 창의적이진 못해도 이지적이고 일관성있고 집중력이 있었다. 기막힌 균형을 갖추었던 마포삼열은 온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sup>①</sup>

마포삼열 탄신 100주년 기념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 선견지명과 실천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하였다.<sup>②</sup> 그의 절친한 동역자였던 방위량(William N.Blair)은 마포삼열이 사람들을 화합하는 남다른 능력과 미래를 예견하는 은사가 있어서 한국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였다.<sup>③</sup>

그의 선견지명을 알게 하는 이야기중에서도 그가 평양을 선교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평양은 처음에 우호적이 아니었는데 마포삼열은 그곳을 선교의 중심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가 평양을 정하는 일에 대하여 길진경은 이렇게 썼다.

평양에 도착해서 자신은 미국 북장로교회의 목사로서 그 교파의 파송을 받아 예수교를 전하러 조선에 온 선교사임을 밝히고 복음운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배타적인 토착민들은 이질적인 서양문화에 대해 반항적인 핍박을 가했다.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의 정세에 비추어, 마포삼열목사는 김선달씨의 주선으로 동대문안에 있는 한 민가를 얻어 유숙하면서 노방전도와 개인전도에 힘썼다. 한편으로는, 평양 사회를 자세히 시찰하면서 인사들의 접촉을 통해 시민들의 성격과악에 신중을 기했다. 또 평양은 역사적인 도시이자 이북의 중심지로 사람들의 성격은 용단력이 있고 솔직하면서도 대중적인 기질이 있음을 간파했다. 사실, 권력을 장악할 특수층이 없고 문자 그대로 평양사회는 대중적이었다. 당시

① Martha Huntley, To Start a Work : The Foundations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1884-1919)(Seoul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87), p.157.

② 마포삼열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1964년 1월 25일. p.5.

③ William N. Blair & B. Hunter, The Korean Pentecost & Sufferings Which Followed(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p.33.

사회상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어가는 그때에 있어서 기독교의 대중침투는 빈부의 차이와 사회적계급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은 관서지방이 가장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인 평양사회에 선교근거지를 설치한 것은 마포삼열 선교사의 예리한 관찰과 지혜있는 결단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sup>48</sup>

마포삼열의 그같은 능력을 보여 주는 다른 사건으로는 그가 방위랑과 함께 안주에 갔을 때 그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곳이 북한선교의 전략적 기지로 적합함으로 방위랑에게 이곳을 선교 근거지로 삼으라고 권고한 일도 있었다.<sup>49</sup>

그는 또한 전도열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그의 평양생활의 어느 날을 헛트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밤낮없이 온종일을 전도했다. 그의 사랑방은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찾아와서 아침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그칠줄 몰랐다. 차분히 먹고 쉴 시간도 없었다. 운동삼아 산책을 나가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전도지를 뿌렸다.<sup>50</sup>

그 외에도 그는 순회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1898년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그의 그같은 근황을 이렇게 말하였다.

두사람이 한달동안에 60여 회회를 돌아다니면서 세례희망자 400여명을 문답하고, 한 두 군대를 걸어서 예배를 인도하며 30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만나고 1000여명의 학습문답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도 각종의 교회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sup>51</sup>

그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천년설을 믿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방위랑에 의하면 마포삼열의 그같은 믿음이 그의 생각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일생동안에 결혼할 때 외에는 늘 그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sup>52</sup>

마포삼열의 전천년설신봉은 그 당시의 대부분의 북미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 무디(D.L.Moody)의 영향으로 일어난 학생자원운동(SVM)을 주축으로 했던 그때의 선교운동은 무디의 전천년설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초엽에 활동한 미국 선교사들의 70%가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었다.<sup>53</sup>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할 수 밖에

<sup>48</sup>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 종로서적, 1980), pp.84-85.

<sup>49</sup> W. Blair, Gold in Korea(Topeka, H.M. Ives and Sons, 1957), p.32.

<sup>50</sup> Huntley, *op. cit.*, p.234.

<sup>51</sup> Moffett to Ellinwood, June 27, 1898.

<sup>52</sup> W.N.Blair, Precious Memories of Dr. Samuel A. Moffett. 미간행 인쇄물. p.6.

<sup>53</sup> David Barrett, Cosmos, Chaos and Gospel(Birmingham : New Hope, 1987), p.50.

없었고 그같은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열정적 전도활동에 몰두하게 하였다. 마포삼열의 전도열도 그같은 신앙적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두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와같은 그의 전도열이요, 둘째는 그의 선견지명이다. 그의 불타는 전도열은 그가 한국장로교회의 개척자로서 우리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겨 주어 우리 교회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하였다. 또한 그의 선견지명이 초기의 한국교회의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예측과 대비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교가 어떤 나 타난 현상에 반응적(reactive)으로 역사하는 것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추진하는 것(proactive)과는 큰 차이가 있음으로 예측과 대비(proactive)는 현대선교에서 크게 중요시 하는 요건이다.<sup>⑩</sup> 한국교회가 그의 이같은 귀한 능력을 이어 받지 못한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B. 신학교육

선교사역에서 현지 지도자 양성의 성패는 선교의 성패에 직결된다. 가능한 빨리, 좋은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포삼열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네비우스원리를 주종으로 했던 선교원리를 실시하면서 신학교를 창설한 것은 네비우스의 원래의 방법을 달리하는 면이다. 네비우스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가 선교했던 중국 산둥성에서 그는 오랫동안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의 흠이었다. 현지인 사역자 양성은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이 시작되면서 원칙적으로 강조된 점이었다.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였던 경건주의자들이 인도에서 취했던 정책이나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가 강조했던 원리에는 항상 현지 지도자 양성을 급선무중의 하나로 꼽았다.<sup>⑪</sup>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교의 부진과 더불어 좋은 현지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같은 원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마포삼열이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주로 성경과 전도를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같은 그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배위량은 “성경을 거의 유일한 교과서로 강조하고 공부하였다... 장로교도들은 그들의 칼빈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없이 믿었다”<sup>⑫</sup>고 하였다. 백낙준은 “그들이 배우는 신학과목은 기독교를 철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것들이 아니요, 거의 전적으로 성경공부였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사실상 교회일꾼들을 위한 성경학교에 불과하였다”<sup>⑬</sup>고 했고 선교사 중에서도 마포삼열식의 신학교육에 반발한 사람이 있었다. 게일(J.S. Gale)은 “당신의 방법은 긍정 못하겠소. 표준은 너무 낮고 교수방법은 저질이며 강의 자료는 낡아 빠진 것들이고 학생의 등록수는 너무 많소”<sup>⑭</sup>라고 그의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종성도 “그 학교의 신학적 입장은 철저히 근본주의적 이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시작한

<sup>⑩</sup> David J. Hesselgrave,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Grand Rapids : Academic Books, 1988), pp.90-91.

<sup>⑪</sup>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Harmondsworth : Penguin Book, 1966), p.265.

<sup>⑫</sup>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Seoul, Korea : June 30 - July 3, 1934) p.121.

<sup>⑬</sup>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pp.317-318.

<sup>⑭</sup> R.Rutt, A Biography of James Sorah Gale and a New Edition of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eoul :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Taewon Pub, Co., 1972), p.60.

사람들이나 교수한 선교사들이 강력한 근본주의자들 이었기 때문이다”<sup>35</sup>라고 비판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비판적 견해에 맞서서 서명원같은 이는 그 당시의 신학교육이 그같은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마포삼열을 위시한 선교사들이 제한된 인원과 재정 때문에 장기적이고 소수 정예위주의 교역자 양성에 어려움을 느꼈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는 한국교회를 돌볼 교역자들을 그런 형태로 양성해야 되는 현실적 필요도 있었다고 하였다.<sup>36</sup>

위의 논란은 양편에 일리가 있다. 평양신학교의 목사후보생 양성이 신학적 균형과 미래의 교회지도력도 감안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처럼 급성장하는 교회에 지도자를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부흥과 함께 진행되는 신학교육은 다른 나라에서도 때때로 그같은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경건주의자들의 선교운동의 요람이 되었던 할레(Halle)대학의 신학부가 그 전성기에는 신학보다 성경에 역점을 두어 가르쳤었다. 또한 무디의 부흥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는 신학교들이 있었으나 성경학교들을 세워 성경과 전도에 치중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다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학교를 세워 마포삼열은 한국장로교회의 지도자 교육의 책임을 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교회의 급성장에 지대하게 기여 했고 한국이 세계선교지역에서 현지 지도자 양성에 가장 성공한 지역중의 하나로 평가 받게 하는데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 C. 선교원리(방법)

마포삼열의 선교원리는 독자적인 창작이 아니다. 이른바 옛날 방법(Old Method)과 네비우스 방법(Nevius Method) 등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잘못된 방법으로 취급된 낡은 방법의 요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중심지에 자리 잡은 선교사는 전도자를 고용하여 파송하고 자기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 ② 모든 신자가 자기의 마을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선교사는 그들의 가능성에 확신이 없다.
- ③ 선교사들이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자치는 불가능하다. 선교사는 형식적인 독립을 최상의 것으로 바란다.
- ④ 소도시나 시골의 집회처는 선교부에서 매입하거나 빌린다. 선교비 보조를 받는 일꾼이 이 장소들을 관리케 한다.
- 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네비우스 방법이 말하는 성경공부만이 없다.
- ⑥ 교인들을 잃은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규율을 엄하게 지키지 않는다.
- ⑦ 지역분할을 반대한다.
- ⑧ 중국에서 천주교는 그들의 성직자들에게 관리직을 요구하였으나 개신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잘못된 사건들은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sup>35</sup> Rhee Jong Sung, "Types of Church Leaders Today," Korea Struggles for Christ(Seoul : C.L.S., 1973), p.136.

<sup>36</sup> Shearer, *op. cit.*, pp.119-120.



⑨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무관심하다.<sup>47)</sup>

이상과 같은 옛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네비우스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그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①선교사의 광범위한 순회전도

②자립전도 : 모든 신자는 가르치는 사이면서 자기 보다 나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③자치 : 각 교회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전도사 밑에서 치리받게 하며 여러 교회를 사역하는 조사의 생활비는 각 교회가 분담하도록 한다.

④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하도록 한다.

⑤신자들은 성경공부반 지도자와 순회조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한다.

⑥성경의 교훈대로 철저히 치리하고 훈련한다.

⑦다른 교회와 협조하도록 한다.

⑧고소사건이나 그같은 일이 생겼을 때 타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sup>48)</sup>

네비우스의 이같은 원리들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그 핵심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다르기도 한데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의 정신을

①각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형편에 거하게’ 하며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자기 이웃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업을 꾸려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②교회의 방법이나 조직을 토착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③교회 스스로가 가능한한 인력과 재정을 공급하게 하여 이웃속에서 복음사역을 하게 하되 좀더 나은 자질이 발견된 사람은 별도로 둔다.

④본토인들로 자기네 교회 건물을 마련하게 하되 그 건물은 토착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역교회가 능히 꾸밀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sup>49)</sup>

결국, 현지의 토착교회의 자립, 자치 및 자력전도를 강조하고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하며 좋은 신자로 살게 하는 원리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방법은 바울의 선교에서 그 오리지날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19세기말의 영미 선교운동의 거인이었던 헨리 벤(Henry Venn)과 앤더슨(Rufus Anderson)의 주장이기도 하였다.

1893년에 한국장로교선교부공의회가 네비우스의 정신을 근간으로 10개항의 구체적인 선교원리를 결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①상류계층 보다 근로계층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낫다.

②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전도하는데 특별히 힘 써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③시골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이런 학교에서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내보내도록 한다.

④앞으로 한국인 교역자도 이런 곳에서 배출된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sup>47)</sup> C.A.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New York : Fleming H. Revell, 1930), pp.33-34.

<sup>48)</sup> Ibid., pp.33-34.

<sup>49)</sup> H.G.Underwood, Call of Korea, pp.109-110.

⑤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정확한 말로 성서를 번역하여 내어 놓아야 한다.

⑥모든 신앙서적은 한글로 쓰도록 한다.

⑦진취적인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라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선교사의 보조를 받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자립교회와 헌금하는 교인을 늘인다.

⑧한국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은 한국인들이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대중에게 전도하는 것 보다 소수의 전도자들을 철저히 훈련 시켜야 한다.

⑨의료선교사들은 병실에서나 또는 환자의 집에서 오랫동안 친절하게 치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본을 보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외래 환자 진료소는 효과가 별로 없다.

⑩지방에서 와서 오랫동안 치료받은 환자들은 그 고향까지 찾아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절한 대접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전도자를 위하여 넓은 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sup>⑩</sup>

마포삼열은 이같은 네비우스의 정신과 장로교 선교부의 선교원리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선교하였다. 1934년, 마포삼열이 70세가 되어 한국 선교사로서의 생애가 끝나 갈 무렵, 그를 승계하여 평양신학교의 교장직을 수행하며, 가까이 동역했던 라부열은 “이제 우리가 그의 사업을 이어 그 장래를 전망하는데 우리는 그가 일생을 통하여 확고히 믿고 노력해온 원리를 계승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마포삼열의 선교원리를 이렇게 말 하였다.

①우리 교인은 각 개인이 자력으로 복음을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절대적 의무가 있음.

②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을 고조(高潮)하고 전교회에 조직적 성경공부를 시킬 것.

③최초부터 각 교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

④이렇게 독립된 교회는 또한 반드시 자치 하여야 할 것.

⑤의료기관은 복음전파의 가장 유효한 기관임을 깊이 인식할 것.

⑥교육사업은 그 착안점을 신자의 자녀교육에 두고 동시에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할 것.

⑦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감화에 의지하여 개인의 중생과 교회의 지도 발전을 도모할 것.<sup>⑪</sup>

이상의 7가지 원리 가운데서도 그가 핵심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고수한 원리는 성경공부, 전도 및 자립의 원리이고 한국교회성장에 가장 요긴하게 작용했던 그의 선교 전략도 이 세가지의 원리였다.

## 1. 전도

한국선교 25년을 회고하면서 마포삼열은 열심으로 순회하며 전도한 것이 우리 선교의 특징이라고 술회 하였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전도지, 쪽복음, 신약성경 등을 널리 반포하였고<sup>⑫</sup> 개인이든, 소수의 무리이든, 혹은 길거리나 여관, 특별히 사랑방같은 곳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격식없는 대화를 통하여 전도하였다.<sup>⑬</sup>

<sup>⑩</sup>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 권클리야사, 1982), pp.94-95.

<sup>⑪</sup> 라부열, “사무엘 마켈(馬布 三悅牧師),” 신학지남, 조선평양신학교. 16권 5호, 1934년 9월. p.25.

<sup>⑫</sup> Samuel A. Moffett, “Evangelistic Work,”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ongyang August 27, 1909, p.16.

<sup>⑬</sup> *Ibid.* p.17.

이같은 일상생활속에서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형태는 초기 교회가 실행했던 방법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도가 모든 신자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신념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다. 한국교회회년을 경축하면서 마포삼열은 지난 50년동안 선교사와 한국교인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 되었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고 한국신자들이 그들을 따랐다고 하였다.<sup>44</sup> 열심히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은 특히 마포삼열이 선교하던 지역에서 괄목할만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곳 선교사(마포삼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1898년에 언더우드(Underwood)가 평양을 중심한 평안도 일대의 교회성장과 서울지역의 성장추세의 큰 차이를 놓고 선교사들의 노력의 차이가 컸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sup>45</sup> 서명원은 언더우드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36년후에 로드(Harry Rhodes)는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 서울에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가 투입되었는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였다는 것이다.<sup>46</sup> 비슷한 인구가 살았던 서울과 평양의 기독교인의 수는 서울에는 약 5,000명의 세례교인 뿐이었으나, 평양에는 약 50,000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는데, 이같은 비교를 통해 볼 때 선교사들의 수나 노력의 차이가 교회성장의 격차를 가져 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sup>47</sup>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새 신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자훈련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사역한 것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한 방법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마사랏(Samuel H. Moffett)의 지적처럼,

북쪽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는 표시로 전도하도록 하였다. 목사들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의 새신자들은 그들의 영적체험으로 가득찬 기쁨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권위있게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증인들이 되었다. 평신도들로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전달방법으로 그들의 동네에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집단전도운동(People's movement)의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sup>48</sup>

로드(H. Rhodes)도 1926년에 지난 수년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전도사역에서 떠나 기관에 종사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sup>49</sup>라고 말하여 선교방법, 특히 전도에 열중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지대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포삼열이 누구보다도 열열하게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한 것은 그의 신앙의 특징이었고, 한국에 오기전부터 그의 정신에 철저히 베인 신학적 신념이었다. 마포삼열이 교육받고 선교사로 자원하던

<sup>44</sup> Samuel A. Moffett, "Fifty Years of Missionary Life in Korea, Jubilee Papers,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U.S.A. June 30-July 3, 1934. p.41.

<sup>45</sup> Roy Shearer, I.R.M., p.465.

<sup>46</sup> Personal Report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eoul. 1934, Shearer의 위의 글에서 인용.

<sup>47</sup> Ibid., p.466.

<sup>48</sup> Samuel H. Moffett, "What Makes the Korean Church Grow!" Christianity Today, Nov. 23, 1973. p.11.

<sup>49</sup> Personal Report. Seoul, 1926.

시기에 미국을 압도했던 영적 분위기와 장로교 선교부의 핵심인사들의 신앙과 신학적 특징을 보면 마포삼열의 그같은 면을 보다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가령, 1891년부터 46년동안 미국장로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장로교 선교운동을 관장했던 스피어(Robert E. Speer)는 프린스턴대학 재학시절에 피어슨(Arthur Pierson)과 무디(D.L. Moody)의 심대한 영적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대학졸업후 1년간 학생자원운동(SVM)의 요원으로 일했고 프린스턴신학교를 1년만에 증퇴한 철저한 자원학생운동파(S.V.M. man)였고 이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정신에 사로잡힌 열렬한 전도자였다.<sup>59</sup> 1900년, 뉴욕에서 회집된 에큐메니칼선교회의 석상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 그와 그의 입장을 성실히 따르기를 위한 선교사(예 : 마포삼열)들의 정신이 천명되어 있다. 그는 “해외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에 모우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온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다… 목표와 방법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재구성(total reorganization)은 선교의 결과일수는 있어도 목표는 아니다”<sup>60</sup>라고 하였다.

이 시대의 장로교 선교부는 무디의 영적 영향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철저한 전천년설 신봉자로 인간영혼구원을 교회에 절대적으로 화급한 사명으로 믿은 사람이었다. 마포삼열도 무디의 영적 제자들인 학생자원운동권과 동류였다.<sup>61</sup> 그런 면에서 마포삼열은 한국에서 사역한 누구보다도 S.V.M. 정신에 입각한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였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마포삼열은 그의 불타는 전도열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전도했을 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자가 일상적으로 전도하게 함으로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초래케 하였다.

## 2. 성경공부

마포삼열은 두 가지 점에서 특히 네비우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첫째는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립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였다.<sup>62</sup>

그가 성경공부를 선교활동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성경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때문이었다.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마포삼열은 말과 편지로 한국선교의 위대한 결과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방법은 그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 말씀을 가르친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모든 믿는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sup>63</sup>

선교5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확신을 재강조 하였다.

<sup>59</sup> Gerald H. Anderson, “American Protestants in Pursuit of Mission : 1886-1986,”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ary Research. Vol. 12, No. 3, July, 1988. p.101.

<sup>60</sup> R.E.Speer, “The Supreme and Determining Aim,”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New York, 1900 : Report(New York : American Tract Society, 1900), p.74-78.

<sup>61</sup> 마포삼열박사전기, p.61.

<sup>62</sup> Quarto Centennial Papers, p.18.

<sup>63</sup> Ibid., pp.28-29.

한국선교의 전도 메시지에 관한 항상 명백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인 복음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고 믿는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취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었다.

이같은 확신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시하였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독특하고 최우선적인 강조를 한 것이 지난 50년동안의 성공적인 한국복음화의 뛰어난 요인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sup>55</sup>

그가 네비우스의 성경공부강조에 대하여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의미 보다는 그가 이미 가졌던 확신을 경험많은 선교사의 교훈을 듣고 더욱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가 있다고 했다.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전파하지 않기로 하고 그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다.<sup>56</sup> 성경자체가 선교의 최대의 능력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였다. 그는 한국교회가 그의 힘(power), 그의 영성(spirituality), 그의 기도하는 신앙, 그의 희생적 헌신등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깊은 성경지식으로 갖추었다고 하였다.<sup>57</sup> 이와같이 성경자체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성경공부를 독려한 이유였다.

둘째로 그가 그토록 성경공부반을 강조한 것은 성경공부를 통하여 기도, 친교, 전도방법개발, 간증등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도훈련도 겸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명원은 “한국 신자들의 전도와 새 신자들의 교육 및 그들을 바로 전도요원으로 활성화한 방법이 서북지방에서 대성공을 얻은 비결이라고 하였다.<sup>58</sup> 어떤 이는 서울과 평양의 교회성장의 차이가 현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가지지만 아래의 도표에 나타난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서울과 평양의 1905년의 교세대조를 보면 그보다도 선교사들의 선교방법의 차이가 더 중요한 요인인것을 알 수 있다.<sup>59</sup>

선교부	지역	선교사	세례교인	학습교인	헌금액
북장로교	평양	19	5,468	10,744	14,977원
북감리교	평양	12	2,501	3,509	2,184원
북장로교	서울	29	1,963	3,915	3,346원
북감리교	서울	20	3,120	6,318	2,486원

위의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회는 서울이 평양보다 성장했는데 장로교회는 서울보다 10명이나 적은 선교사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서울보다 교인수가 훨씬 많았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마포삼열의 지도하의 평

<sup>55</sup>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p.40.

<sup>56</sup>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p.173.

<sup>57</sup> Quarto Centennial Papers, p.17.

<sup>58</sup> Shearer, I.R.M., p.466.

<sup>59</sup> the Korea Review, Vol. 6, No.3. 1906, p.100.

양지역의 선교가 성경공부와 새신자의 전도자화라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많이 맺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오늘까지 한국교회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삼락이 1973년에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도 동감한다.

1970년초에 한국교회의 신자증가율이 년 9% 정도로 그당시 인구증가율의 4배였다. 이같은 한국교회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해답이 있을 것이지만 반세기도 넘는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마포삼열이 한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다. 그때부터 한국은 세계선교운동사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졌고 그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선교방법을 알아 보기위한 연구위원회가 파견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역했던 서북지방에서 이같은 극적성장이 처음으로 일어 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 비결을 물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대답이 그들을 실망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경건주의적 냄새가 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고 그외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라고한 그의 대답이 옳았다고 생각한다.<sup>60</sup>

성경말씀이 전도의 기본적 방법자체라는 믿음과 교육을 통한 전도의 활성화가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 교회를 꾸준히 성장케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 3. 자립

흔히 3자원리(자전, 자립, 자치)로 요약되는 네비우스의 방법중 마포삼열은 자력전도와 자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한듯 하다. 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사실이다.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사와 한국 교회간에 긴장이 조성될 것을 염려 하였다.<sup>61</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는 자력전도나 자립정책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역이 시작되면 개척(pioneer), 양육(parent), 동역(partner) 및 동참(participate)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자치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마포삼열은 전도나 성경공부반과 함께 자립면에 괄목할만한 공헌을 하였다. 방위량은 네비우스방법의 뜻을 안다면 마포삼열은 모범적인 네비우스인(Nevius Man)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자립해야 한다고 믿어 선교회가 교회건물을 매입해주는 것 보다 신자의 집에서 몇년이라도 모이는 편이 낫다고 믿었다. 또한 교회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교역자를 모시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sup>62</sup> 그는 교회가 선교부가 요긴하게 사용할 만한 땅을 자기 돈으로 사두었다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쓰게되 반드시 땅값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평양에 27군데와 그 부근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sup>63</sup>

<sup>60</sup> S.A.Moffett, *op. cit.*, p.11.

<sup>61</sup> Joh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60-1936(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83), pp.128-139.

<sup>62</sup> W.Blair, Precious Memories of Dr. S.A.Moffett, p.13.

<sup>63</sup> *Ibid.*, pp.13-14.

한국교회가 이 원리에 잘 적응하여 1897년 평양의 예배처 53개처중에 25개처가 자체건물을 건축했고 그 다음해에는 126예배처중에 69개처가 건물을 신축하여 한 해에 44개처를 건축하였다.<sup>64</sup>

1908년에는 188개 장로교회 중에 186교회가 자립교회였다.<sup>65</sup> 선교25주년을 기점으로 840교회중에 선교사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건축한 교회가 20처 미만이었다. 589개의 국민학교가 모두 한국교회부담으로 세워졌고 1052명의 한국사역자들의 생활비의 94%를 한국교회가 부담하였다.<sup>66</sup> 장로교회가 자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실시한 반면 감리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헌트리는 그 결과로 두 교회간의 성장에 큰 격차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67</sup>

이렇게 다져진 우리나라 교회의 자립정신과 성격은 그후 한국전쟁의 결과로 그전과 같은 엄격한 적용이 시행되지 않게 된 경향이 생겼으나 한 세기를 지나온 우리나라 교회의 급성장에 있어서 이 원리가 끼친 공헌은 중대한 것이 사실이다.

#### IV. 맺는 말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해야 한다. 마포삼열이 그토록 강조했고 우리에게 물려 준 좋은 전통인 성경중심의 신앙과 열렬한 전도열을 고수하면서 이제는 통전적(wholistic)으로 성장하도록 힘 써야 한다.

첫째로 넓게 성장하여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깊게 성장해야 한다.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심오하게 성숙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체험도 깊어져야 한다. 셋째로 높게 성장해야 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고상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길게 자라야 된다. 우리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넓고, 깊고, 높게 성장함으로써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생동력있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sup>64</sup> Huntley, *op. cit.*, p.354.

<sup>65</sup> *Ibid.*, p.353.

<sup>66</sup> Quarto Centennial Papers, p.23.

<sup>67</sup> Huntley, *op. cit.*, p.254.







